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9년 3월 8일(일)
음력 2월 12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서진업(원송) | The chongji news | 구독문의 02-552-1080 | 불기 2553년 | 제112호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입제

국가발전, 호국 – '자녀 잘되기' 기원

▲진호국가불사의궤의 만다라관 도표

불교총지종은 2월 19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38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입제불사를 봉행했다.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총기 4년인 지난 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궤를 제정하고 그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한 해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실시되며,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은 내달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은 호국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으로, 정법을 홍포하고 좋은 정치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국위가 선양되어 백성들이 안락하고, 국권이 튼튼하여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밀교 고승인 명랑법사와 혜통국사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많은 승려들이 이 경을 호국불교경전으로 신봉해 왔다.

한편 종조법설집에는 "49일 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국가발전과 호국에 있다. 이 정진은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희사하고 서원해야 한다.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잘되기를 소원하는 서원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 진호국가불공은 가급적 저녁에 하는 것이 공덕이 크며 매일 정송하는 불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공은 반드시 북쪽으로 향하여 앉아 염송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다.

"창조, 협동, 경애하는 동해인 될께요"

동해중 39회 졸업식 거행 / 총 졸업생 수 16,333명

▲종립 동해중학교가 2월 22일 제 39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총지종장학금 전달 장면.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가 2월 22일 오전 10시 교내 운동장에서 제 37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선언과 국민의례, 학교 연혁 보고, 졸업장 및 상장 수여, 학교장 회고사, 이사장 치사, 통리원장 축사, 송·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교법인 관음학사 김현우 이사장을 비롯해 정각사 대원주교, 도현 정사, 이성호 학교운영위원장, 이은진 학부모회장, 총동창회장 이진복 의원, 학부모, 가족 등이 참석했다.

김현우 이사장은 치사에서 "졸업생들은 우리 동해 중학교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 창의적인 사고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슴에 담고 생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늘 최선으로 성실과 양심, 질서와 인정을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은덕도 잊지 말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총지종 원송 통리원장은 정각사 대원 정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일만오천명의 졸업생 선배님들과 동문회, 재학생,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 명문사학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종립학교 학생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진언수행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학교 교훈인 창조, 협동, 경애를 바탕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창조적 가치관을 지닌 미래 국가사회의 역군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이와함께 "원대한 꿈을 펼치고, 배우기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런 동해인이 될 것"을 당부했다.

1967년 개교한 종립 동해중학교의 총 졸업생 수는 모두 16,333명이다.

총지사, 다음카페- '진언행자'로 명칭 변경

종단 홈페이지와 더불어 종단 홍보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총지사 카페(cafe.daum.net/chongjisa)가 '진언행자'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7년 9월 오픈한 총지사 카페는 서울 총지사 교도들의 사랑방으로 사원 소식과 행사는 물론 의견수렴까지 아우르는 사이버 포교를 펼쳐 왔다. 그러나 일개 사원에 한정돼 있어 공간제약이 없는 사이버 포교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카페 운영진은 최근 이를 수용해 카페 명칭을 바꾸는 한편 부분 리뉴얼을 단행했다. 카페 운영진은 "이번 명칭변경 등을 통해 카페를 종단 전 사찰 교도와 종단에 입문하는 초심자들의 모임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 등재돼 있는 진언행자 카페는 ▷우리들의 이야기 ▷카페앨범 ▷사경과 기도 ▷불교설화 ▷신행상담 등의 다양한 메뉴로 구성돼 있다.

사감원, 통리원 등 과년도 결산감사

"종무행정 효율성- 합리성 제고"

▲총지종 사감원은 2월 26일 총기37년 정기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총지종 사감원(원장 지성)은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통리원, 법장원, 유지재단, 종단 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기37년(2008년)도 정기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기37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과 주요업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 사원신축공사, 사원수리비의 지출과 용역 및 물자구매계약의 적정성, 예산운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인사처리 및 인재양성 계획, 승직자와 종무원의 복지실태 등 종무행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자료정리 및 예산집행면에서 향상되었다"며 "이번 감사는 종무행정 활성화, 교세확장 방안과 각 부서별 활동 평가 등을 중심으로 종무행정과 수행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감사평가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집행의 유효성에서 대체로 무난했다"고 언급됐다.

종조법설

해탈(解脫)은 자율적(自律的)이고 자주적(自主的)인 인격의 완성

해탈은 고(苦)의 근거인 번뇌(煩惱)로부터의 해탈로써 고의 멸각(滅却)을 의미한다. 이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체념 혹은 허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해탈은 여실지견(如實知見)에 의한 우주인생의 진리를 철견(徹見)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2면 기획. 원정 대종사의 가르침 ⑨
10면 중국, 중국인①(총지사/이정화)
12면 현대찬불음악 개척자 서창업

개천사 정법수(正法修) 대전수 원적

대구 개천사(주교 : 경원정사) 정법수(正法修 속명: 趙英子) 전수가 2월 19일 오후 11시 30분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세수 63세로 원적에 들었다.

정법수 전수는 1947년 충남 부여 출생으로 총기 24(1995)년 총지종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했다. 1995년 부산 정각사, 2005년 대구 개천사에서 근무했으며, 2007년 밀인지 대전수를 품수 받았다.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 창조, 협동, 경애
교 목 : 보리수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사설

이 시대의 종교가 해야 할 일

'감사해요. 용서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세요.' 평범한 이 말이 요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선종(善終)에 드신 천주교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다. 사랑의 실천을 몸소 행한 분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 분의 말씀과 실천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단절의 벽을 허무는데 모자람이 없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을 듯하다. 사랑의 실천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더욱 팍팍해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한줄기 빛이 되었다. 한 선각자를 떠나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 커다란 가르침과 실천의 메시지를 되새기고 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종교의 역할을 새삼 느끼게 한다. 종교는 정신적 위안과 심적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 했을때 존재 의미가 있다. 특히 선각자의 실천적 삶은 일반 국민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고 청량제의 역할을 한다. 종교인의 헌신적인 봉사와 실천적 삶은 각박해진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감로수와 같고 큰 버팀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특히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善終) 이후에 뜨겁게 일고 있는 장기기증 운동 열풍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시민, 사회단체를 넘어 정부부처까지 장기기증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기업에서도 발벗고 나섰다. 전체 매출액의 1%를 각막기증을 위해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다. 시신 기증도 잇따르고 있다. 그 동안 의과대학교와 병원에서는 시신이 부족해서 해부학 실습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미 그전부터 불교계에서는 장기와 시신기증 운동을 시작해왔다. 생명나눔운동실천본부가 그 한 예이다.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이다. 이미 부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덧없음을 설파하셨다. 사람의 목숨이란 실로 무상(無常)한 것이라 잠시 사대(四大)로 이루었던 그 몸은 실로 거짓이요 허망무실(虛妄無實)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다. 무상게(無常偈)의 내용이 가슴에 와닿는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보시행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의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육신을 보시하는 소신공양(燒身供養)도 있지만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은 참으로 이타(利他)의 보시행이라는 생각이다.

장기기증이나 시신기증은 사회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다. 사후에 따로 묘지를 조성하지 않고 바로 화장으로 연결되므로 매장문화의 변화를 가져 오고, 의료의 연구와 기술 개발로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과연 종교와 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을 잊고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가 가지는 힘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 선각자의 실천과 가르침이 서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변화의 원천이 되고 있다.

알림방

▶ 총지불교교양대학이 3월 10일 오후 2시 개강합니다.
▶ 정각사 하은정 보살님의 손자 류지현 군이 서울대 생물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총지사는 매월 2째주 월요일 1시30분 서예교실을 개설합니다.

기획연재 敎史를 통해 본 宗祖 苑淨 大宗師의 가르침 ⑨ / 밀교연구소 · 종학연구실 공동

"정진불공(精進佛供)으로써 결정하다"

『수륙대재를 작년과 같이 시행하기로 한다고 하고 불공정진을 한 결과, 일기는 양호하고 교도수에 변동이 없었으나 식구가 감기로 인하여 약값이 지출된 것 외에는 여타의 날과 변동이 없고 순조로웠다. 어류방생에 대한 정진결과로는, 일기가 양호했고 교도수에 변동이 없었고, 새로운 교도가 3명 입교하였고 가정불공이 하루에 3건이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하루가 변동이 없었고 순조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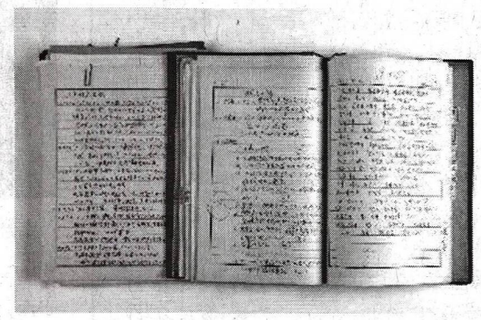
위 내용은 총기9년 3월에 있었던 '불공정진결과보고' 공문 가운데 일부다. 당시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수륙대재와 어류방생 실시'에 대한 전 승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 사원에 공문을 보내어 '수륙대재와 어류방생에 대한 불공정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다. 이에 전국 사원에서는 3월 한달 중에 하루를 특정하여 주교 스승이 사안에 대한 결과정진 불공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던 것이다.

당시 또다른 사원의 정진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또다른 사원의 정진결과는 이러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 종일 바람 불고 구름이 많이 낀 날씨다. 보살 가정에 불평과 고통이 생기고 희사 법문이 크게 보이나 보살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아내지도 못했다. 어떤 교도 보살이 가정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 원망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수륙대재의 정진불공결과,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몹시 불었다. 종일 마음이 밝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일의 질문이 들어왔다. 저녁때에는 구름이 걷히고 날시가 조용하였다. 복잡한 영식들을 천도하기 위하여 수륙대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으로 판단된다. 어류방생에 대한 정진불공결과, 집안이 편안하지 못하고 시끄러웠다. 생각지도 않게 돈이 나가는 법이 보이고 몸이 고달프고 집안이 어수선하여 공연히 말싸움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어류방생은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이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렇듯 종단의 중요사안에 대해서 종종 전 승단에 의견을 물으셨다.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니라 불공법으로써 종정(宗政)에 참고하셨으니 참으로 법다운 법이요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종단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법을 밝게 보시는 중진 스승에게 결과정진을 하달하시고 진언염송에 의한 내증(內證)의 결과로써 법을 보셨던 것이다. 종조께서는 이 법을 일러 '결과내증 정진불공법(結果內證精進佛供法)'이라 하셨다.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진언으로써 일어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 속에서 진리법을 통찰하신 것이다. 이 진리법을 종조께서는 '당체법문(當體法門)' '당체설법(當體說法)'이라 하셨다. 즉 삼라만상의 현상이 밀교의 주불(主佛)인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진설법(無盡說法)인고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곧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 가르침이 당체법문이라는 것이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곧 비로자나부처님이요 당체설법인 것이다. 그래서 비로자나부처님을 법신불(法身佛)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체(當體)는 '바로 그 본체(本體)를 말하는 것'으로, 밀교에서는 변치않는 진리와 우주 삼라만상의 모습과 본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당체법문' '당체설법'이라 하면, '비로자나부처님께서 무언(無言) 무형(無形)의 법과 진리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진리, 가르침'을 가리킨다. 당체법문은 일체 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진리이며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가르침이다. 현상(現象)이 곧 진리(眞理)이므로 당상즉도(當相卽道)요, 즉사이진(卽事而眞)인 것이다. 이 당체법문을 통해 진언행자는 바른 법을 얻게 된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불공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나 현상, 어려운 난관과 고난 등을 만나게 되는데,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상을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 난관과 현상이 곧 마장(魔障)이 되고, 희사법을 쓰며 염송정진에 들어가 이를 잘 받아들이고 지혜로써 헤쳐나가면 그 난관과 현상들은 나에게 당체법문(當體法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파하셨다. "불공 중에 오는 마장을 현실로써 막지도 않고 만약에 진리로써 막지도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는가. 만약 상지상근(上智上根) 사람들은 삼밀관행으로 보리심(菩提心)의 대응가약(對應佳藥)을 얻은 것만으로써 일체번뇌를 극복하여 능히 공덕을 성취하되 요말(?末)의 중생은 삼업이 습성되고 삼독(三毒)이 고질(痼疾)되어 있는 고로 병에 응해 약을 안주고 그 미진(迷津)에 약 안주면 시련고개 못이기며, 시간 어겨 중단하고 마장 따라가는 고로 마장있는 그때마다 육행(六行) 약을 쓰게 되면 끓는 물에 얼음 같이 마장 없어지느니라. 불공만 정하면 마장이 오는 일이 더러 있는데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불공 중에 오는 마장은 공덕되기 위해 오는 것이므로 먼저 탁(濁)하고 뒤에 맑아지는 법이라. 밀교의 삼륜신(三輪身)은 관행자(觀行者)가 공덕을 성취하려고 정진할 그 때에 법을 주어서 행자(行者)로 하여금 자기의 허물과 결점을 체험으로 알게 하고 없애도록 하기 위해 오는 법을, 아직 증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장이라 하느니라. 삼륜신은 병에 응해 약을 주는 법문(法門)을 베풀어서 육행(六行)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법신 부처님의 근본서원인고로 행자가 육행 중 하나라도 행하는 데 마(魔)가 아니라 도리어 공덕이 되어 지느니라. 또 삼밀로써 칠일 불공 중에 삼륜신의 법이 정녕 그렇다면 지혜가 어두운 이는 마장(魔障)이라고 말할 것이요 지혜가 밝은 이는 법문(法門)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가 밀교에 들어와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오늘에 와서 그동안 칠일간씩 삼밀로써 정진해 오던 길을 돌아보면 칠일 정진 중에 일어난 마장은 다 법문으로써 행자(行者)의 인격을 완성하는 방법이 되었으며, 인간을 개조하는 방법이 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시련하여 금강같이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되었으며 난행(難行) 고행(苦行)을 실행케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애착이 화해서 평등한 마음이 되게 하였고 탐심이 화해서 단시(檀施)하는 마음이 되게 하였고 진심(瞋心)이 화해서 화합하는 마음이 되게 하였고 어리석은 마음이 화해서 지혜가 밝고 인과(因果)를 아는 마음이 되게 하는 도량(道場)이 되었던 것이니 사십구일 정진 중 당체설법(當體說法) 보다 더 좋은 법문(法門)은 없을 것이다."고 하셨다. 그래서 종조께서는 진언행자의 현실생활에서 이러한 당체법문과 결과내증법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나가는 것이 밀교의 현실수행법이라고 강조하셨다. 결과내증법이 신앙과 일상생활 속에서 큰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진 결과를 통해 좋은 것은 좋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참고하여 조심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그런 점에서 교도 는 특히 불공 중에 당체법문을 보면 즉시 스승님께 여쭈어서 그에 맞는 불공으로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스승에게 질문하여 내증의 법으로써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종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도로서 질병 혹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스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스승은 그 사정을 잘 알아서 방문하여야 할 것은 방문하고 정진해야할 것은 정진하고 희사하여야 할 것은 희사하여서 식재(息災)되게 하고 길상(吉祥)할 때까지 항상 그를 위해 불공하여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종조께서는 정진불공의 내증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셨다. 사진은 원정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진일지」의 일부.

종조께서는 위의 수륙대재와 어류방생 뿐만 아니라 종단의 주요 결정사항들에 대해 '결좌내증 정진불공법'을 행하셨다. 지면 관계상 그 내용들을 일일이 소개할 수 없다. 그 불공법 또한 모두 드러내어 밝힐 수 없다. 비밀불교의 법이자 사자상승의 법이기 때문이다. 결과정진법을 행할시 주의할 점을 소개하자면 이렇다.「매일 수행하는 정시(定時) 정송(正誦) 후 식전이나 오전 중에 마음이 안정되어 전일(專一)한 마음이 이뤄졌을 때 희사법을 따로 세우고 행한다. 그날 보고 듣고 일어난 모든 것이 당체법문(當體法門)이니 세심하게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명령에 의한 것이나 기정화된 사실에 대해서는 내증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불공 기간과 자성일에는 내증법을 행하지 않는다. 결혼과 같은 일대 중대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람 보다 못한 법이다. 지나치게 결과법에 매달려서 맹신(盲信)이나 과신(過信)을 하게 되면 사도(邪道)로 흘러 바른 신행(信行)이 될 수 없으므로 너무 자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하되 반드시 사원의 스승님께 질문하여 결과 정진법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종조 원정 대성사의 정진불공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종정 참여의 사표(師表)라 할 수 있고, 수행적인 측면에서 승단과 교도들의 불공정진력을 배가시킨 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과 접목하여 생활불공법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정진불공으로써 모든 것을 결정'하셨던 그 가르침을 지금에 와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가르침이 이렇게 들리는 듯하다. '항상 정진불공으로써 모든 일에 임하라'.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khbbud@paran.com)

〈다음호는 기획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법의(法衣)와 도량(道場)의 변천'을 싣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9년 2월 1부터 2월 28일 까지

개천사	최필조	2. 2	100,000	기로원	사홍화	2. 26	10,000	밀인사	이혜성	2. 25	20,000
개천사	이화권	2. 3	10,000	기로원	법수원	2. 26	10,000	밀인사	이연수	2. 26	10,000
개천사	박상순	2. 9	10,000	기로원	법지원	2. 26	10,000	밀행사	금강륜	2. 4	20,000
개천사	경 원	2. 10	10,000	단음사	법연지	2. 27	5,000	백월사	이갑진	2. 25	10,000
개천사	정법수	2. 10	10,000	단향사	이지은	2. 13	10,000	백월사	박인철	2. 25	5,000
개천사	윤 찬	2. 12	10,000	단향사	행원심	2. 13	10,000	백월사	박인국	2. 25	5,000
개천사	이희권	2. 26	10,000	만보사	이경순	2. 2	10,000	백월사	박삼순	2. 28	10,000
관성사	박현숙	2. 4	10,000	만보사	지 성	2. 10	10,000	법천사	김정숙	2. 5	5,000
관성사	정인순	2. 20	10,000	만보사	승효제	2. 10	10,000	법천사	시 정	2. 26	10,000
관성사	해 정	2. 25	10,000	만보사	이현진	2. 10	20,000	법천사	원만원	2. 26	10,000
관성사	정법계	2. 25	10,000	만보사	민순분	2. 14	10,000	법천사	박말조	2. 26	5,000
관성사	박현숙	2. 26	10,000	만보사	이종구	2. 14	5,000	법황사	강길자	2. 13	20,000
관음사	신막심	2. 18	10,000	만보사	최옥순	2. 16	10,000	벽룡사	이희숙	2. 5	10,000
기로원	상지화	2. 26	10,000	만보사	유복근	2. 20	30,000	삼밀사	원 송	2. 2	10,000
기로원	불멸심	2. 26	10,000	밀인사	정정희	2. 2	5,000	삼밀사	인법계	2. 2	10,000
기로원	법장화	2. 26	10,000	밀인사	이희원	2.9	10,000	삼밀사	일각정	2. 25	10,000
기로원	대자행	2. 26	10,000	밀인사	원 당	2. 10	10,000	삼밀사	원 송	2. 26	10,000
기로원	대 관	2. 26	10,000	밀인사	묘심해	2. 10	10,000	삼밀사	인법계	2. 26	10,000
기로원	총지화	2. 26	10,000	밀인사	이재갑	2. 14	20,000	선립사	황귀석	2. 12	10,000
기로원	수증원	2. 26	10,000	밀인사	이재호	2. 19	10,000	선립사	정복지	2. 12	10,000
선립사	심지장	2. 12	10,000	정각사	구정희	2. 12	20,000				
성화사	우담바라	2. 19	50,000	정각사	박수빈	2. 19	10,000				
수인사	한애숙	2. 3	20,000	정각사	오윤보	2. 19	5,000				
수인사	장영택	2. 17	30,000	정각사	변순개	2. 26	5,000				
수인사	김봉기	2. 26	10,000	정각사	윤선자	2. 28	10,000				
시법사	환수원	2. 10	10,000	지인사	허성동	2. 16	20,000				
실보사	우 인	2. 13	10,000	지인사	연등원	2. 25	10,000				
실보사	보명심	2. 13	10,000	총지사	최해선	2. 20	20,000				
실보사	이순옥	2. 19	5,000	통리원	지 정	2. 26	20,000				
실보사	조순애	2. 19	20,000	혜정사	최영례	2. 16	10,000				
실보사	송희준	2. 26	10,000	화음사	강순란	2. 5	5,000				
실지사	송우섭	2. 6	5,000	화음사	강승훈	2. 19	10,000				
실지사	정우석	2. 10	10,000	화음사	홍남순	2. 26	60,000				
실지사	이화수	2. 16	10,000		이숙남	2. 10	30,000				
실지사	정경자	2. 27	5,000		임동수	2. 18	30,000				
운천사	이영애	2. 9	50,000		오일록	2. 26	10,000				
운천사	오주화	2. 25	10,000		김종철	2. 27	30,000				
자석사	이판도	2. 20	10,000		무명씨	2. 11	20,000				
자석사	우바이들	2. 20	51,000								
정각사	김문수	2. 12	10,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풍경소리

아들에 대한 충고

게으른 사람은
부처님의 아들이자 제자인 라훌라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심성이 거칠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라훌라를 불렀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내 발을 씻겨다오."
부처님은 발 씻은 물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거나 양치질을 할 수 있겠느냐?"
"발을 씻은 물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너도 그 물과 같다."
부처님은 대야를 발로 차 버리며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저 대야가 깨질까 봐 걱정하느냐?"
"이미 발을 씻은 그릇이요, 값이 싼 물건이라 아깝지는 않습니다."
"너도 그 대야와 같다. 비록 수행자이지만 말과 행동이 바르지 않다면
저 값싼 대야처럼 사람들이 너를 아껴주지 않는다."

현재를 잘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 임제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와서 스님을 마구 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 알겠는가?
그 사람이 오면 그 순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난 날의 그림자를 그리워하는 것은
말라버린 갈대를 만지는 것과 같으며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린다는 것은
흘러 올 강물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성냄

성냄은 마름의 불꽃이라
그동안 쌓은 복을 다 태워버립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참고 또 참아 진실된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성내는 마음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성내는 그 마음을 참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선묵 혜자 스님(풍경소리 대표이사, 도선사 주지)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교

~천수경 편 제 37화~

글.그림/정수일

정수일홈피->http://www.drawing라훌라.kr

이달의 명상 　입을 열면 어긋난다

태고보우 국사 부도/ 양평 사나사

선사들은 말을 않거나 말을 부쉈다. 개구즉착(開口卽錯). 입을 열면 곧 어긋난다는 뜻이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본래의 참모습과는 멀어진다는 경고다. 선사들이 불립문자(不立文字)를 당부한 이유는 간명하다. 말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말을 낳기 때문이다. 선사들은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무심이라고 여겼다. 곧 생각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길다 짧다 옳다 그르다 유능하다 무능하다… 생각에 기름을 붓는 말을 곱게 봤을 리 만무하다. 동서고금의 숱한 논(論)과 변(辯)은 전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나름의 시도였다. 세계(삶)에 대한 생각이 세계를 반영한다고, 세계에 관한 언어가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세계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한 말들이었다…

길위의 절 절안의 삶/ 장영섭

정각 불교문화센터

불교총지종 정각사

불교 교양강좌

불교입문 전통승단 교육에 기초, 불교의 실천적 이해, 부처님의 생애, 불교예의, 초발심자경문, 불사법요, 반야심경

강 사 : 보 정 | 전 고려대 연구교수
현 총지종 기획실장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까지
수강료 : 무료 / 3개월
교재비 별도(1만 원)

어린이 강좌

책 읽는 미술 (독서미술)

강 사 : 김정숙
시 간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4시 20분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재료비 별도 (1만 5천원)
대 상 : 초등 1, 2, 3학년

교육 강좌

생활영어 (즐거운 기초영어회화)

강 사 : 박순영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수강료 : 6만 원 / 3개월
교재비 별도 (1만 원)

건강 강좌

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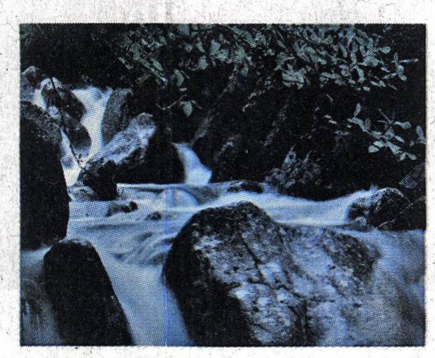
강 사 : 장선희
시 간 : 주 3회(월, 수, 금) 오후 4시 50분 ~ 6시
수강료 : 6만원 / 3개월

태극권 응위 노사의 태극 도인술, 진소왕 노사의 전사공

강 사 : 전통 진가 장문인 진소왕
현 양정 진소왕 태극권 도관 관장
부산 지방고등법원 태극권 수련지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교육원 출강 중
시 간 : 주 2회(화, 목)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수강료 : 21만 원 /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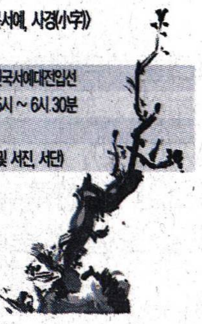
활기공 활공사 수개법, 송모근 풀어주기, 견갑골 풀어주기, 상지결 풀어주기, 요추 풀어주기

강 사 : 김대원
한국기공사 연합회 교육과장, 단학선원 활공사 트레이너,
단학선원 지원장, 자연의원 부원장(암 전문 자연치료의원)
시 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 ~ 12시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취미 강좌

서예 강좌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경(寫經))



강 사 : 샛검 김도영 / 대한민국서예대전입선
시 간 : 주 2회(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재료 별도준비(벼루 및 서진, 서단)

오카리나 강좌

강 사 : 최숙자
시 간 : 매주 화요일 : 오후 1시 30분 ~ 3시
수강료 : 5만 원 / 3개월
재료 별도준비(오카리나)

꽃꽂이강좌 (생활꽃꽂이 자격증반, 꽃가게 창업반)

강 사 : 이미화 / 하정 꽃 예술중앙회 전문 강사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토 오전 10시 30분 ~ 12시
수강료 : 6만 원 / 3개월
재료비 별도

사군자 강좌

강 사 : 시강 하연숙
비엔날레 전국휘호대회 대상(서예)
부산미술대전 우수상(문인화)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시 간 : 주 2회(화, 금) 오후 6시 30분 ~ 8시30분
수강료 : 10만 원 / 3개월

수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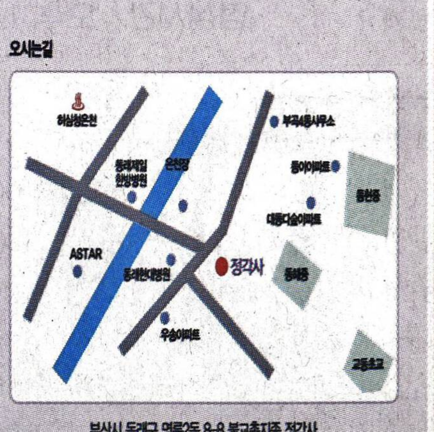
불교문화센터는 입회비가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시 작성하여 주시는 수강신청서로 회원 가입을 대체하여, 회원가입비는 없습니다.
강좌 개강은 3월, 6월, 9월, 12월이고, 수강신청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은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수강하실 경우 자녀분의 이름으로 수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전화 신청을 하실 경우 먼저 전화 주시어 원하시는 강좌의 마감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성함,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 주신 후 해당 강좌의 수강료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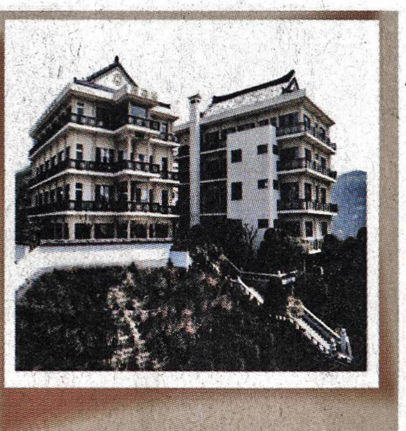
* 매학기 접수 당일은 전화 접수를 받지 않고 방문 접수만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강좌는 기존회원, 신규회원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하며 강좌 개강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미달할 경우 사정상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 정기 강좌의 수업은 12회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법정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 수강료는 3개월 기준이며, 별도로 표시가 없는 한 재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강좌 시작 후 접수시에도 수강료는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강 신청 후 환불이나 강좌 변경이 가능하며,
- 신청하신 강좌의 취소는 개강 후 2주 이내, 접수 후 2주 이내에 가능하며, 접수시 받으셨던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 변경을 원하시는 강좌가 마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강좌로 변경해 드립니다
- 강의 시간에는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오시는길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8 불교총지종 정각사
문의사항 : 051-051-552-0705/7901
051-552-7902(F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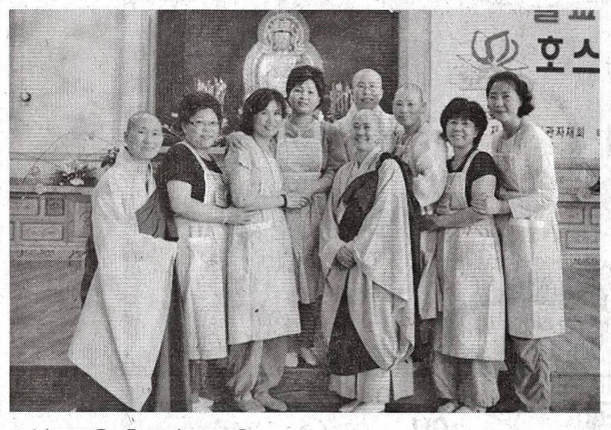
정각불교문화센터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기 위한 불교문화공간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승속의 경계를 허물고 이 사회를 부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부처님에 대한 숭배와 고답적인 수행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건전한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마음의 여유와 자비로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불교적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하에 정각불교문화센토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다라의 복지세상 ⑥

호스피스의 정의와 봉사활동



▲불교교육 호스피스 교육

1. 호스피스란?

호스피스(Hospice)는 라틴어의 어원인 Hospes(손님) 또는 Hospitum(손님접대)을 맞이하는 장소'로부터 기인되며 주인과 손님이 서로 상호 돌보는 것을 상징한다.

씨실리 쏜더스(Cicely Saunder) 박사는 "중세의 호스피스는 순례자나 여행자가 하룻밤 쉬어 가던 휴식처로 새삶을 찾는 피난처였으며, 근대에 와서는 임종 환자를 보살피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오늘날 호스피스는 불치의 병뿐만 아니라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간호 공동체이며 그 관심의 초점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둔다."것이라 하였다.

호스피스 운동은 말기환자나 임종자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 과학기술로 인한 비인간화 내지는 비인격화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전개된 인간성 회복의 운동이며, "치료(Cure)"보다는 " 돌봄(Care)"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간호이다. 즉 호스피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품위를 지닐 수 있도록 의료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필요의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사랑의 동반이다.

2. 호스피스 활동

호스피스활동은 말기환자와 임종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돌보고 지지한다. 호스피스에서 간호의 단위는 환자와 그 가족이다. 환자가 죽음의 과정을 겪는 동안 그 가족도 함께 모든 과정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상실과 슬픔에 대비하도록 그 가족을 돕게 되며, 임종환자는 임종과 더불어 간호가 끝나지만 환자의 유가족은 상실한 가족에 대한 슬픔과 아픔으로 오랫동안 실의와 상실감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유가족에 대한 간호와 관심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해야 하며 개인에 따라서는 2년까지도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남은 생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하고 충만된 삶을 살도록 한다. 임종자의 질적인 삶의 유지란 가능한 한 진실되고 참된 삶의 유지와 더불어 편안하고 생기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과 더불어 주변의 모든 것을 즐기도록 배려하며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고, 통증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나 통증이나 증상관리가 그의 삶의 민감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은 삶의 자연스런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삶은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는 믿음에서 죽음을 전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은 삶의 자연스런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 호스피스는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는 것은 아니다. 임종환자의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음을 알 때 삶의 질을 최대로 높이도록 노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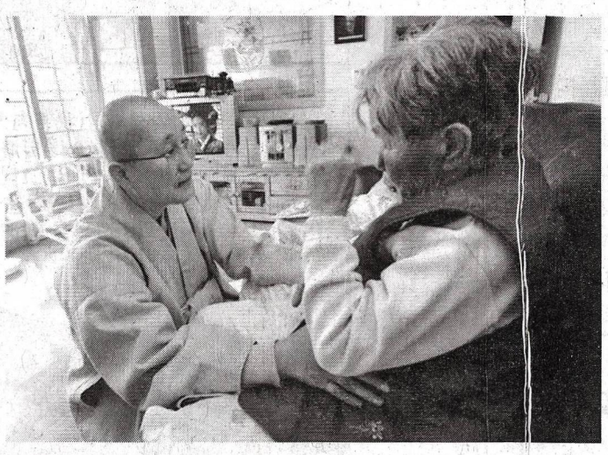
호스피스 간호에서 인간을 보는 견해는 총체적 이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 이론은 전체를 모든 부분의 합 이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인간은 신체, 사회심리, 영적인 측면의 합 이상의 존재로 보는 것이며 동시에 각 부분의 독립성의 특성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3. 불교 호스피스

호스피스 시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유형화하면 독립형, 병동형, 가정형, 산재형 등 4종류로 구분된다.

독립형 호스피스는 청주의 정토마을처럼 가정적 분위기의 독립건물을 지어 서비스하는 형태이다. 병동형은 병원 내 일부 병동 및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며, 가정형은 전문 봉사자와 의료진이 방문서비스를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산재형은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없이 다른 환자들과 섞여 입원해 있으면서 봉사를 받는 형태이다.

어떤 종류의 호스피스라고 해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다. 가정적 분위기도 있고, 전문적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고, 상담과 가족과의 연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현 시점에서 불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호스피스는 가정형 시설과 중간 쉼터, 그리고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다.



호스피스 병동은 이미 주요 병원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시설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반면에 가정형은 환자의 집을 호스피스 팀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필요시에는 중간 쉼터로 이동하여 병원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쉽고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가정호스피스와 중간쉼터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봉사팀을 잘 구성해야 한다.

호스피스에 참여하려는 사찰은 중간 쉼터를 만들어 가정서비스만으로는 힘든 환자와 가족들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사회복지사 및 임상봉사자, 그리고 스님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스님들은 슈퍼바이저로서의 능력과 환자와 가족의 상담 및 위로,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불교적 가치관을 제공함으로써 안심입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연꽃자비회 가족봉사

매년 많은 수의 호스피스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괴로움이 크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도 언제까지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 가정형 호스피스와 중간쉼터를 적절히 설립하고 봉사팀들을 지역별로 잘 조직화 한다면 호스피스 환자의 고통도 크게 완화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찰과 신도들 모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사찰 차원뿐만 아니라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총지동의보감

'습관성 유산'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자칫 여성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임신계획 및 출산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적 정책들이 최근 들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젊은 부부들의 불임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젊은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습관성 유산도 넓은 의미의 불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습관성 유산'은 말 그대로 과거에 두 번 이상 또는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자연 유산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정확히 임신 5개월 전에 위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 반복 유산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위험하다.

불임여성의 고통만큼이나 반복적으로 유산되는 경험을 가진 여성들은 임신을 확인한 후부터 극도의 정신적 불안, 긴장, 스트레스를 받는다.

습관성 유산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첫째, 유전자 이상-자연유산의 50-60%가 해당. 세포분열 과정 중 염색체가 이상을 일으켜 발생.

둘째, 호르몬 이상-뇌하수체 기능 이상, 정신적 요인 때문에 충분한 양의 호르몬이 생성되지 못해서 발생. 셋째, 해부학적 이상-자궁경관무력증, 자궁근종, 자궁내막증과 같은 자궁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내분비 이상, 생식기 감염,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습관성 유산의 상당 부분은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한방에서는 오장육부의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습관성 유산을 활태(滑胎)라고 하는데 이것은 태아가 미끄러져 빠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한방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모르는 다수의 습관성 유산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전신의 기혈이 약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단순히 자궁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식기관을 담당하는 간과 신장기능저하 , 기혈을 담당하는 심장과 비장 기능의 이상으로 유산이 된다고 보고 있다.

습관성 유산의 치료는 간,신장과 심,비장의 약해진 기능을 강화시키고 충분한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산도 출산과 더불어 충분한 산후조리가 필요하므로 적어도 다음 임신까지 3개월 동안은 자궁 및 오장육부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이 유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최적의 치료법이다.

참고로 한의학에서는 유산도 하나의 출산의 과정처럼 충분히 자궁이 기능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조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임신을 하는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임신을 위해서 충분히 자궁과 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즉 최소 2-3주간은 몸을 차게 하거나 찬 음식을 주의하도록 하며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역국을 끓여먹는 방법도 어혈을 풀어 자궁회복을 도와주므로 참고할 만하다.

죽비소리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된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이 생겨나 그 마음속에 나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따라 악해져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과 같이 모든 죄와 괴로움 나쁜 생각 따르리.

〈법구경 法句經〉

자경단(子經丹)
좀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어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붕루증, 자궁선근종,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입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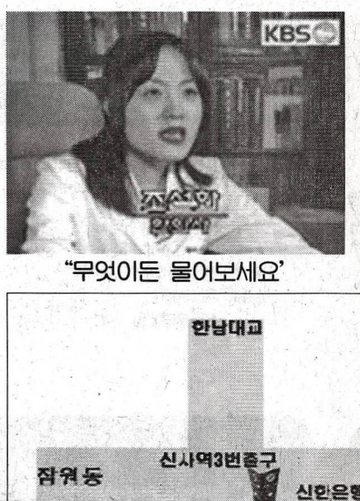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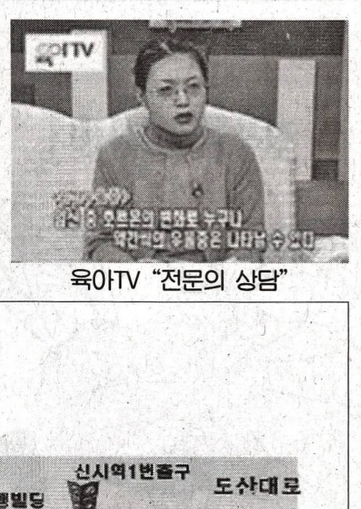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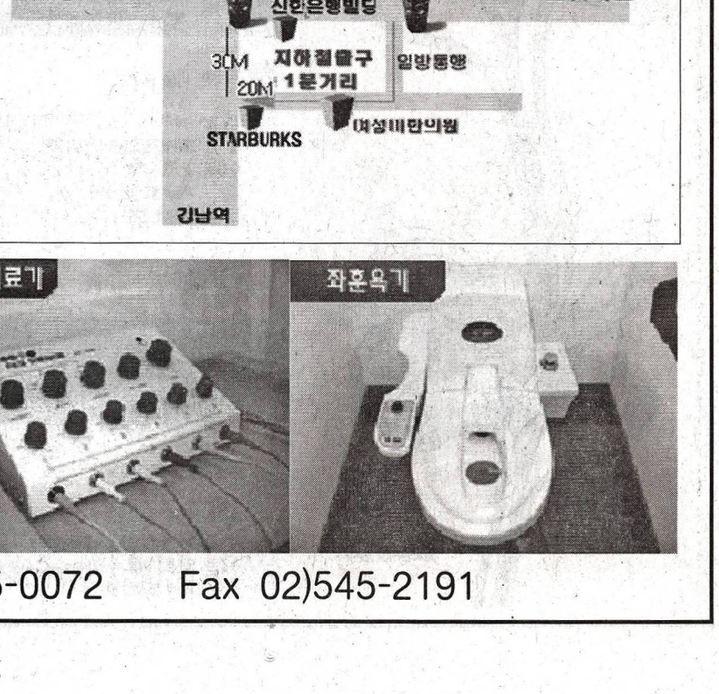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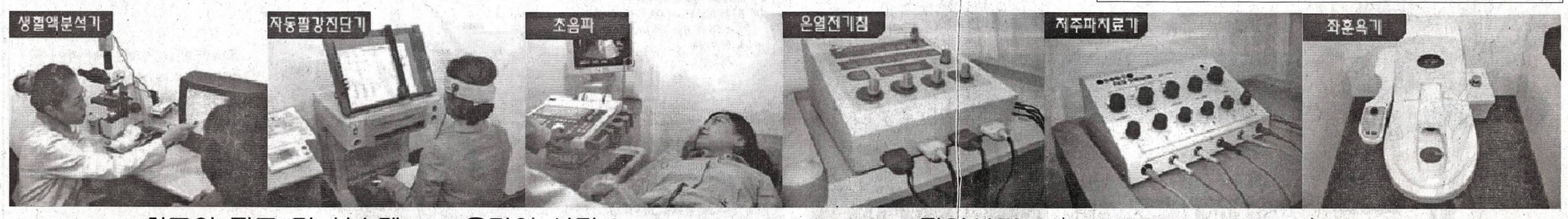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지상설법

부강한 나라 (上)

화 령
〈중앙교육원장〉

요즘 우리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나라를 진정으로 부강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해서 정책을 펴다보니 나라의 체질이 허약해져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들은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원칙을 지키고 근본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가 밧지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세력이 큰 나라는 마가다와 코살라였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만년에 이들 두 나라는 서로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주변의 부족 국가들을 정복하고 통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마가다의 아사세(阿?世;Aj?tasattu)왕이 밧지국을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 먼저 우샤라는 신하를 부처님께 보내어 밧지국을 치기 위한 조언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밧지국에 머무시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밧지국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일곱 가지 법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째, 밧지국 사람들은 자주 모임을 가지고 바른 일을 서로 의논하여 모두 실행한다.

둘째, 밧지국 사람들은 왕과 신하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공경한다.

셋째, 밧지국 사람들은 법을 받들어 삼가야 할 것을 알고 예의를 어기지 않는다.

넷째, 밧지국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여 순종한다.

다섯째, 그 나라의 부녀자들이 정숙하고 진실하며 웃고 농담할 때라도 그 말이 음란하지 않다.

여섯째, 밧지국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을 공경하고 계행이 청정한 이를 존경하여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일곱째, 그 나라의 백성들은 종묘에 제사지내고 조상을 섬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일곱 가지를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어른과 젊은이가 서로 화목하고 갈수록 흥할 것이며 이러한 나라는 언제나 안온하여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이 일곱 가지 법을 실행하면 어떤 적이라도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은혜는 잊지 말고 원망심은 잊을 것"

이 말을 들은 우샤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밧지국 사람들이 이 일곱 가지 중에서 하나만 행할지라도 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일곱 가지를 다 지킨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샤가 아사세왕에게 돌아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아사세왕은 밧지국을 침략하는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밧지국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화합하면 어떠한 적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화합하지 못하면 스스로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밧지국 사람들의 경우와는 정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밧지국 사람들은 자주 모임을 가지고 정의에 대해 의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는 당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고집 때문에 아예 모이는 것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일에 대해 의논할 기회도 가지지 못합니다. 수억 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면서도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세력 싸움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괜찮겠지 하고 뽑아 놓은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 이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밧지국 사람들은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위아래도 없습니다. 나쁜 일 하는 데나 아래 위가 패거리를 지어서 화목할까 그 이외에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기 바쁩니다. 개혁이다 수구다 하면서 화목은커녕 서로 의견이 다르면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립니다. 좌다 우다 하면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때로는 세대차를 내세우면서 늙은 퇴물과 철없는 어린 것들로 서로를 매도합니다.

밧지국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예의가 바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법은 약한 사람들에게만 호되게 적용되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법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법을 적용하여 벌하려면 재수 없어 법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분명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자기는 희생양이라느니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겨 벌을 받았던 사람도 어느 날 권력을 잡고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법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회가 어떻게 바르게 성장하겠습니까? 이러한 풍조는 어느 특정한 부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도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또 그런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래놓고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법을 존중하고 또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걸 맞는 응징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용서 받는 사람이나 용서 하는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승단의 계율을 어기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눈감아 주었다면 승단이 유지되었겠습니까?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서려면 우선 법 적용이 올발라야 하며 공평해야 합니다. 권력 있고 돈 있다고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썩은 사회입니다. 지금의 우리 나라가 그렇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진리의 여울

◇진실한 관찰

부처님께서 카샤파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한 보배의 모음(大寶積)인 이 법문에 의해 배우려는 보살은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존재에 대한 올바른 수행인가. 그것은 곧 모든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다. 그러면 또 무엇이 모든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인가. 자아(自我)가 없다고 보는 관찰과 중생이 없다, 목숨 있는 것이 없다, 개인이 없다, 개아(個我)가 없다, 인간이 없다, 인류가 없다고 관찰할 경우 그것을 곧 중도(中道)라 하고,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라고 한다.

중도, 즉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란 물질(色)에 대해서 영원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다고 보는 관찰이다. 이와 같이 느낌(受)과 생각(想)과 의지작용(行)과 의식(識)에 대해서도 영원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이 중도이고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다.

어떤 존재를 가지고 영원한 것이라거나 무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쪽에 치우친 극단론이다. 이 영원과 무상 사이의 올바른 것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며, 나타나지도 않고 인식될 수도 없으며 무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 중도, 즉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다.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쪽에 치우친 극단론이다. 무아(無我)라고 하여도 이것 역시 극단론이다. 이 유아(有我)와 무아 사이의 올바른 것은 역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며 나타나지도 않고 인식될 수도 없으며 무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 중도, 즉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다. 마음이 실재한다거나 실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위의 경우와 같다.

또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란 다음과 같은 관찰이다. 공(空)한 성질이 있어 그것이 모든 것을 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 그 자체가 본래 공한 것이다. 무상(無相)이 있어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무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존재 그 자체가 본래 상이 없는 것이다. 무원(無願)이 있어 그것이 존재를 바램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 그 자체가 본래 바램이 없는 것이다. 무자성(無自性)이 있어 어떤 존재를 자성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존재 그 자체가 본래부터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 중도이고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다."

〈보적경 가엽품 寶積經 迦葉品〉

◇마음이란

부처님께서 카샤파에게 말씀하셨다.

"애욕에 물들고 분노에 떨고 어리석음으로 아득하게 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과거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미래의 마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현재의 마음이라면 머무르는 일이 없다.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인식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마음은 어떠한 여래도 일찍이 본 일이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장차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작용은 어떤 것일까.

마음은 환상과 같아 허망한 분별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멀리 가고 붙잡히지 않으며 모양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추는 일 없이 나자마자 곧 사라진다. 마음은 등불의 불꽃과 같아 인(因)이 있어 연(緣)이 닿으면 불이 붙어 비춘다. 마음은 번개와 같아 잠시도 머물지 않고 순간에 소멸한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뜻밖의 연기로 더렵혀진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잠시도 그대로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움직인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낸다.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마음은 혼자서 간다. 두 번째 마음이 결합되어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왕과 같아 모든 것을 통솔한다. 마음은 원수와 같아 온갖 고뇌를 불러 일으킨다. 마음은 모래로 쌓아올린 집과 같다.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쉬파리와 같아 더러운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낚시바늘과 같아 괴로움인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적과 같아 항상 약점을 기뻐하며 노리고 있다.

마음은 존경에 의해서 혹은 분노에 의해 흔들리면서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진다. 마음은 도둑과 같아 모든 선근(善根)을 훔쳐 간다. 마음은 불에 뛰어든 부나비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한다. 마음은 싸움터의 북처럼 소리를 좋아한다. 마음은 썩은 시체의 냄새를 탐하는 멧돼지처럼 타락의 냄새를 좋아한다. 마음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종처럼 맛을 좋아한다. 마음은 기름접시에 달라붙는 파리처럼 감촉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남김없이 관찰해도 마음의 정체는 알 수 없다. 즉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얻을 수 없는 그것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없는 것은 삼세를 초월해 있다. 삼세를 초월한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이 생기는 일이 없다. 생기는 일이 없는 것에는 그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에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 사라지는 일이 없는 것에는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다.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다. 죽는 일도 없고 태어나는 일도 없다. 가고 오고 죽고 나는 일도 없고 태어나는 일도 없다. 가고 오고 죽고 나는 일이 없는 것에는 어떠한 인과(因果)의 생성도 없다. 인과의 생성이 없는 것은 변화와 작위(作爲)가 없는 무위(無爲)다. 그것은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본성인 것이다.

그 타고난 본성이 허공의 어디에 있건 평등하듯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타고난 본성은 모든 존재가 마침내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 본성은 몸이라든가 마음이라는 차별에서 아주 떠나 있으므로 한적하여 열반의 길로 향해 있다. 그 본성은 어떠한 번뇌로도 더럽힐 수 없으므로 무구(無垢)하다. 그 본성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집착, 자기 것이라는 집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마음의 본성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결국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점에서 평등하다.

그 본성은 가장 뛰어난 진리이므로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고 참된 것이다. 그 본성은 본질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없어지는 일도 없다. 그 본성은 존재의 여실성(如實性)으로서 항상 있으므로 영원한 것이다. 그 본성은 가장 수승(殊勝)한 열반이므로 즐거움이다. 그 본성은 온갖 더러움이 제거되었으므로 맑은 것이다. 그 본성은 찾아보아도 자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아(無我)다. 그 본성은 절대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진리를 구할 것이고 밖으로 흩어져서는 안 된다. 누가 내게 성내더라도 마주 성내지 않고, 두들겨 맞더라도 마주 두들기지 않고, 비난을 받더라도 마주 비난하지 않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비웃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속으로 '도대체 누가 성냄을 받고 누가 두들겨 맞으며 누가 비난받고 누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인가' 라고 되살핀다. 수행인은 이와 같이 마음을 거두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보적경 가엽품 寶積經 迦葉品〉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석식제공,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살기쉬운 밀교상식<22>

밀교의 경전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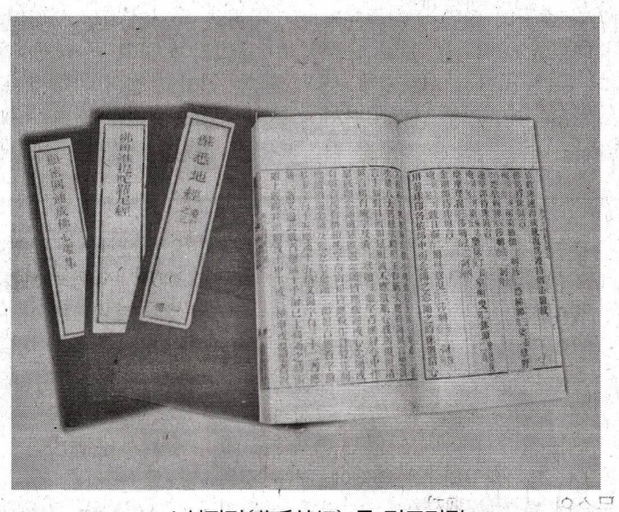
진언, 만다라 조성법 등 설해져
고유의례적 요소에 불교철학 가미

《대일경》과 《금강정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궤나 염송법 등에 관한 밀교 경전은 많이 있다.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순밀(純密)경전이라고 하는데 밀교의 사상과 의궤법, 만다라 조성법 등이 보다 정밀하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라는 뜻이다.

밀교의 경전에는 의식의 작법이라든가 인계(印契), 진언, 만다라의 조성 방법 등이 다양하게 설해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시기를 경과하면서 점점 세련되게 다듬어져 갔다. 초기 불교에서는 원래 명주(明呪), 즉 다라니나 만트라를 외우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한 것은 성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것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정당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치통을 완화하거나 뱀을 쫓기 위한 호신주(護身呪) 등은 일부 허용 되었다. 치통이 엄습할 때는 어지간한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주문을 외우는데 열중하다 보면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고 일시적으로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또 수풀에는 뱀이 많았기 때문에 입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다니면 두려움도 덜어지고 실제로 뱀을 쫓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주문의 효과가 대승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교세의 확장을 위하여 불경 속에 도입되었다.



◇소실지경(蘇悉地經) 등 밀교경전.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외에도 여러 불보살을 다양한 형태로 신앙하고 다라니에 의한 재난 소멸과 세간의 여러 가지 이익을 성취하게 함으로써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불교에 귀의하게 하였다. 《반야심경》 가운데에 '아제 아제 바라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하는 명주가 붙어 있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 또한 《법화경》 가운데에 〈다라니품〉이 들어 있는 것도 밀교에 다라니가 도입되는 초기의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대승경전에 부수되어 산발적으로 도입되던 다라니가 4세기 경이 되자 본격적으로 경전 속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점차 비중을 높여 마침내는 다라니를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 나타나게 되었다.

말하자면, 밀교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경전의 대표적인 것이 외도의 호마(護摩)의식에 관하여 언급한 《마등가경(摩登伽經)》, 삼세제불과 여러 천신 등을 공양하고 여러 가지 작법에 의하여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설한 《대길의신주경(大吉義神呪經)》 비를 오게 하거나 멈추는 법을 설한 《대방등무상경(大方等無想經)》 등이 있다. 그 밖에 이 시기에 나온 경전으로서는 《금광명경(金光明經)》이나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해진 사불(四佛)에 대한 설은 나중에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의 사방사불에 대한 모태가 된 경전이다. 또한 《모리만다라주경(牟梨曼荼羅呪經)》 등에서는 상을 그리는 법이나 결인 및 거기에 따른 진언 등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들 경전들은 밀교적인 요소가 경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는 하나 체계가 완전하게 잡혀지지 않은 밀교경전이다. 즉 삼밀의 완벽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편적인 공양법이나 다라니의 염송 공덕 등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잡부경전이라고 한다.

5~6세기에 이르러 불교에 밀리게 된 바라문교에서는 토착의 민간신앙을 흡수하여 힌두교로 탈바꿈시켰고 민중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다시 세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불교도 이에 영향을 받아 인도 고유의 의례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불교적 색채를 입히고 불교의 철학을 가미하여 더욱 세련된 형태로 경전을 생산했다.

그러한 경전의 대표적인 것들이 《십일면관세음신주경(十一面觀世音神呪經)》이나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 《소실지갈라경(蘇悉地羯羅經)》 《소바호동자청문경(蘇婆呼童子請問經)》 《불공견색신변진언경(不空羂索神變眞言經)》 등이다. 특히 《다라니집경》에서는 제존의 인계나 진언, 공양법 등이 자세하게 설해져 있으며 이러한 경전들을 모태로 하여 7세기부터 《대일경》과 《금강정경》 같은 순밀경전이 나오게 되었다.

화령(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불교설화 <32>

아이들을 보살피고 은덕을 주시는 관세음보살

- 송자관음(送子觀音)

'불효유삼(不孝有三), 무후위대(無後爲大) - 불효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불효가 후사가 없는 것이다'라는 과거 봉건 종법이 있었다. 이런 관념의 속박속에서 회임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심리압력을 견뎌내야 했고 자식을 낳기 위해 관음보살을 생명을 주재하는 신령으로 여겨지던 〈송자관음〉에게 제를 지냈다.

제사를 지낸후 사람들은 관음묘(觀音廟) 젯상에 있던 연꽃등을 훔쳐 신에 제를 지낸 징표를 간직했다. 이는 등(燈)의 음이 정(丁)과 비슷하였기에 '등을 도적질한다(偸燈)'를 '사람이 늘어난다(添丁)'의 뜻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 자식이 하나뿐인 집에서는 아이의 무사평안을 위한 방법으로 아이를 관음묘에 보내여 기명(寄名-오래도록 살도록 절에 이름을 올린다는 뜻)식을 하였다. 이는 아이를 관음보살에게 맡겨 돌보도록 하여 요절을 피하려는 뜻에서였다. 여기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옛날 복건(福建)과 강서(江西) 접경지의 산에 작은 도교사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도사 한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도사는 불사단(不死丹)한 알을 고안해 냈는데 먹으면 장생불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괴한 일은 약효를 제대로 나타내려면 주약(主藥)에 배합하는 보조약으로 어린이 심장 100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도사는 연일 몇밤 하산하여 추녀와 벽을 날아넘는 재간을 피워 주변 100리 내에 있는 모든 마을에서 100명 남자아이를 도적질하여 몰래 감추어 놓고 배를 가르고 심장을 빼어 보조약으로 쓰려고 했다.

이날 밤 갓 천주(泉州)에 낙양교(洛陽橋)를 만들어 놓은 관음보살이 보타산(普陀山)에 돌아가다가 도교사찰을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많은 어린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에 급히 연꽃구름을 눌러 혜안(慧眼)으로 내려다 보았다. 아차! 사찰에는 촛불이 가물가물한데 탁자에 단약 한 알이 놓여 있는데 도사는 썩썩 칼을 갈고 있었고 백여명 어린이들이 한곳에 모여 울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 관음보살은 조용히 손가락을 튕겨 불사단이 땅에 떨어져 도사 앞에 굴러가게 했다. 놀란 도사가 급히 일어나 주으려 하는데 불사단은 손에 닿기만 하면 굴러 갔다. 다급해진 도사는 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집밖에까지 기어갔다. 겨우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한 갈래 바람이 불어와 불사단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화가 난 치민 도사가 밀실에 들어서 보니 100명의 어린이가 보이지 않았다.

물론 관음보살이 도사를 밀실에서 유인한 사이 어린이들을 구해갔던 것이다. 관음보살은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크게 조급해할 것을 생각하여 급히 어린이들을 돌려다 주려 하였다. 헌데 아이들은 집이 어디고 부모가 어딘지도 몰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끝에 관음보살은 무릎을 쳤다. 원주(原州)에 사는 어느 관리가 나이 사십이 지났으나 자식이 없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뒤에서 그 관리를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니 대가 끊길 것이라고 욕하고 있다고 했다. 탐관오리가 틀림없었다. 이에 관음보살이 그를 다스리려고 가만히 어린이 100명을 원주 관가에 데려다 놓았다.

아들이 없는 일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관리 부부는 관공소의 정청에 영문 모를 어린이 100명이 와 있다는 하인의 보고를 받게 되었다. 관리부부가 황급히 청마루에 나가보니 키가 엇비슷한 어린이 100명이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렇게 어여쁠 수가 없었다. 관리는 산양수염을 만지며 기뻐했다.

삽화 : 정윤지

"전부 다 길러라, 전부! 주문왕(周文王)이 아들 100명을 두었다고들 하지 않느냐, 나도 100명을 길러 보련다." 관리의 부인이 입을 삐쭉거렸다. "다 키울만이나 하옵니까? 제가 보기엔 방문을 붙여 백성들이 와서 찾아가게 하는게 바람직하옵니다. 애 하나에 은 10냥씩을 내구요." 화가 난 관리가 소리 질렀다. "그래도 두 셋은 남겨야 해!" 이때 나졸이 아양을 떨었다. "대감마님, 마나님, 아들에 은자까지. 실로 복이 쌍으로 날아드옵니다." 관리부부는 기쁨을 금치 못하고 나졸들에게 연일 방문을 지어 성벽에 붙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 나졸이 황급히 달려왔다. "대감마님, 잘못되었사옵니다.

누군가 방문을 고쳐놓았습니다." 이불속에서 일어난 관리가 급히 물었다. "누가 고쳤느냐? 어떻게?" 나졸이 대답했다. "네마디로 고쳤사옵니다. 어린이 백명을 구원해 주부(州府)관가에 두었으니 애를 잃은 부모는 속히 가서 찾을 지어라. 그런데 누가 고친것인지는 모르옵니다." 관리가 화를 냈다. "멍청한놈, 방문을 예까지 떼어 올 생각은 못하였더냐?!" 나졸이 겁에 질려 말했다. "떼어 올려고 했으나 떨어지지 않았사옵니다." 그때 다른 나졸이 달려와 고했다.

"대감마님 잘못되었사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이 100명을 다 데려갔사옵니다." 어느새 침대에서 뛰어나온 관리는 발을 굴렀다. "당장 가서 잡아오지 못할까!" 나졸이 울상을 하고 말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잡으려면 남해보타(南海普陀)에 오라고 하였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관리부부는 크게 놀라 생각하였다. "그 젊은 여자가 혹여 관음보살님이 변한것이 아닌가..." 관리부부는 생각할수록 두려웠다. 한 사람은 누운채 한사람은 선채 사시나무처럼 떨던 두사람은 결국 그렇게 숨지고 말았다.

관음보살이 애들을 보내준 소식은 어느새 민간에 두루 퍼졌다. 한 입건너 두 입건너 소식이 퍼지게 되자 어떤 사람이 송자관음(送子觀音) 불상을 만들게 되었고 아들 없는 부부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빌게 되었다.

서주(徐州)성 남쪽의 운룡산(雲龍山) 서쪽에 있는 대사암(大士岩)에서는 해마다 음력 2월19일이면 관음보살 탄신일 경축모임이 진행된다. 대사암의 관음회는 청(淸)나라 강희(康熙)년간에 시작되었다. 운룡산 북대문으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남으로는 방학정(放鶴亭)과 흥화사(興化寺)에, 서남으로는 대사암의 옆문으로 갈 수 있다.

옆문에 들어서면 어린애를 안은 송자관음이 보이는데 전각 앞의 복도에는 건륭(乾隆)황제가 썼다는 자운무주장엄상(慈云無住庄嚴相), 덕우상비청정(德雨常飛淸淨心)이라는 주련이 있다. 그리고 전각 문앞 기둥에는 '나는 선한 마음으로 너에게 애를 내릴 것이니 너는 좋은 일에 힘을 다하고 아이에게 은덕을 베풀지니라' 라고 쓴 주련이 있다.

해마다 2월 19일이 되면 공물을 드리는 사람, 향을 태우는 사람, 동냥 하는 사람, 사례하러 온 사람, 구경을 온 사람들로 산길이 물샐틈 없다. 대사암원의 안과 밖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있고 관음상 앞에는 선남신녀(善男信女)와 향을 태우고 배알하러 온 사람들로 줄지어 선다. 대사암 뒤쪽의 방학정과 산동대불전(山東大佛殿)에도 사람들이 가득찬다고 한다.

-심일화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어르신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주소 : 강남구 역삼2동 776-2
문의 : 02)3452-7485 (016-651-8053)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실시

총지종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노인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총비용의 15~20%)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정방문 요양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 문의 : 02)3452-7485(016-651-805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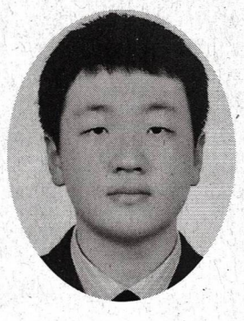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총지문예

"우리나라 습지 보호 취약해요"

각 나라의 습지특성과 보호 현황 관찰

"낙동강 하구에 관심과 애정을"



김주명
동해중 2-6반

체험학습 보고 아시아습지대회 참석

2008년 2월 2일 '습지의 날'을 맞아 '습지 보호 대회'가 열렸다. 민사고 형 누나들 3명과 나는 그 대회에 '낙동강 하구 보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가 우수상으로 뽑혀서 홍콩 '아시아 청소년 습지 보호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석하였다.

민사고에 다니는 김윤기 형과 함께 참석하여 나는 그 대회에서 낙동강 하구에 대해 알렸다. 그 대회에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각 나라의 습지의 특징과 보호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 대회가 끝난 후, 홍콩 습지 공원을 방문하였다. 홍콩 습지 공원 실내에는 세계 각지의 새들이 모여져 있었고, 실외에는 사람들의 휴식처가 제공되어 있었으며, 습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홍콩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여러 곳의 습지 공원을 둘러보았는데, 우리를 습지 공원으로 안내해 준 사람은 WWF에서 근무하는 니콜이라는 분이었다. 니콜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습지에 대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다.

탐조대에 가서 습지에 서식하는 철새들을 관찰하고, 철새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홍콩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습지 보호 현황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새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만들어 주고, 습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아름다운 생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인데 말이다. 나도 우리나라 습지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습지 기행 지도자 양성 과정에 등록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 WWF(World Wildlife Fund) 세계 야생 생물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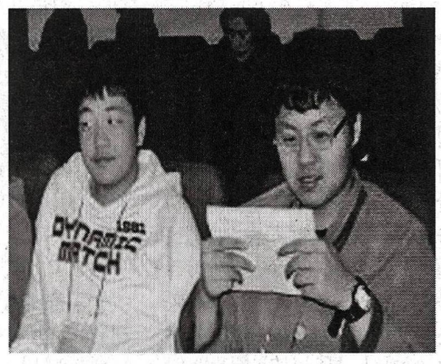
"낙동강 홍보 대사" 낙동강 하구에 관심을

"고니, 재두루미, 저어새 등 온갖 희귀 조류와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 '신들의 정원'이라고 비유되는 낙동강 하구가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 있다는 것을 소개하자 참가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산 출신의 중·고교생이 습지보존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낙동강 하구의 우수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 돌아왔다. 김윤기(17/ 민족사관고-오른쪽), 김주명(14/ 부산 동해중-왼쪽)군은 지난달 26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습지보존 국제 컨퍼런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가자로 초청돼 '낙동강 하구의 현명한 이용'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2일 습지의 날을 맞아 주최한 청소년 습지연구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들은 홍콩 국제 컨퍼런스 주최 쪽의 초청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9개 나라에서 참가한 청소년 연구팀이 각자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의 습지 현안과 보존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들은 명지대교, 명지주거단지, 신항만 건설 등 개발 사업으로 말미암은 낙동강 하구 생태계 파괴 실상을 고발했다.

"보존만을 또는 개발만을 부르짖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이들은 하구에 사는 농민과 어민이 환경이 파괴되지 않은 범위에서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생태 관광 가이드를 맡는 방식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하구에 대한 개발 수요가 상생하는 '현명한 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기 군은 "부산이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 하구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아시아 청소년에게 홍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하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잊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8. 5. 4 한겨레신문)



▲김주명군 '아시아 습지대회'서 '하구 가치' 창조

불교상식① 자비(慈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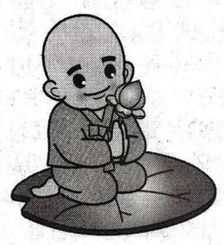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자비(慈悲)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과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拔苦與樂발고여락 혹은 離苦得樂이고득락)'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선 남에 대한 태도로 자비의 정신을 강조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비에서의 자(慈)는 팔리어와 범어의 '벗'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진실한 우정'을 말합니다. 비(悲)의 어원은 '동정. 공감. 함께 슬퍼함'이며 '연민'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비는 '남에게 이익. 안락. 기쁨을 주고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우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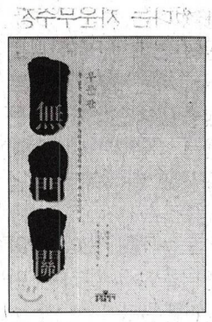


이달의 추천도서

법정 역 | 이레

무문관

무문혜개 저 /광덕 역주 |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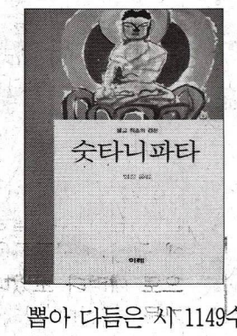
무문혜개 선사의 가르침을 광덕 스님이 일반인들을 위해 가능한 쉽게 번역한 책. 1981년 휘문출판사에서 발행했던 『세계의 대사상』 권 31에 수록되었던 내용을 다시 새롭게 편집하면서 48개의 화두마다 전각가 고암 정병례 선생이 그림을 새겨 넣었다. 책을 통해 인간과 존재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제시하고 있고, 선의 교과서 중 핵심 화두만을 골라 실었다. 소상한 역주와 함께 해제를 덧붙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불교입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편 | 조계종출판사

개정판 불교입문에서는 부처님 생애를 팔상도 중심의 다소 전설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그 생애와 업적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 수행자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성불하게 되었는가를 객관적인 경전 자료에 근거하여 역사적으로 밝히려 했습니다. 아울러 전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부처님의 여러 제자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십대제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로서 깨달음을 이룬 이도 포함시켜 재가자도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가와 더불어 사부대중 공동체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불자로서 신행을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수행과 기도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수행과 기도의 방법, 다양한 수행법을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머리로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체험과 삶이 동반된 불교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아울러 보시의 중요성도 많이 알리려 했습니다.

숫타니파타 : 불교 최초의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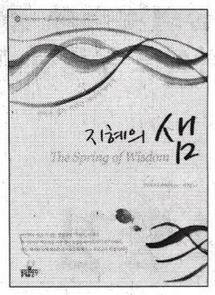


만화가 박재동씨로 하여금 구원과 자유를 꿈꾸게 했던 불교 경전 〈숫파니파타〉. 무소유의 법정 스님이 불교 초기 경전 중의 하나인 〈숫타니파타〉를 단순하고 소박한 해설로 들려 준다.

생사의 거센 흐름에 대한 해안, 피안에 이르는 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등 불교 경전에서 손수 가려 뽑아 다듬은 시 1149수가 정갈하게 자리잡았다.

지혜의 샘 : 영어가 술술 자라는 자타카 이야기

쿠루네고다 피야티싸 영역/ 이추경 역 |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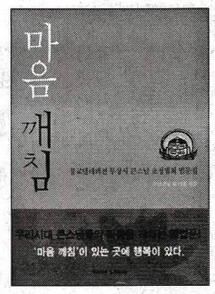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32편 547가지를 담고 있는 '자타카'를 소개한 책. 자타카(jataka)라는 말 자체가 '현생에 태어나기 전까지의 전생 이야기'라는 뜻을 지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무수한 과거 생을 보살로 사시면서 수행하고 공덕을 닦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말 번역문과 영문을 함께 싣는 영한대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말 번역에서 가능한 영문의 의미와 구조를 살렸고, 어려운 단어는 그 뜻을 간단하게 달아서, 영어 학습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불교 용어 뜻을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의 어원을 밝혀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풀이하였다. 책을 통해 친절과 자비심, 함께 기뻐하는 법과 마음의 평정 그리고 인내와 관용, 배움의 중요성 등 삶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마음 깨침 : 불교텔레비전 무상사 큰스님 초청법회 법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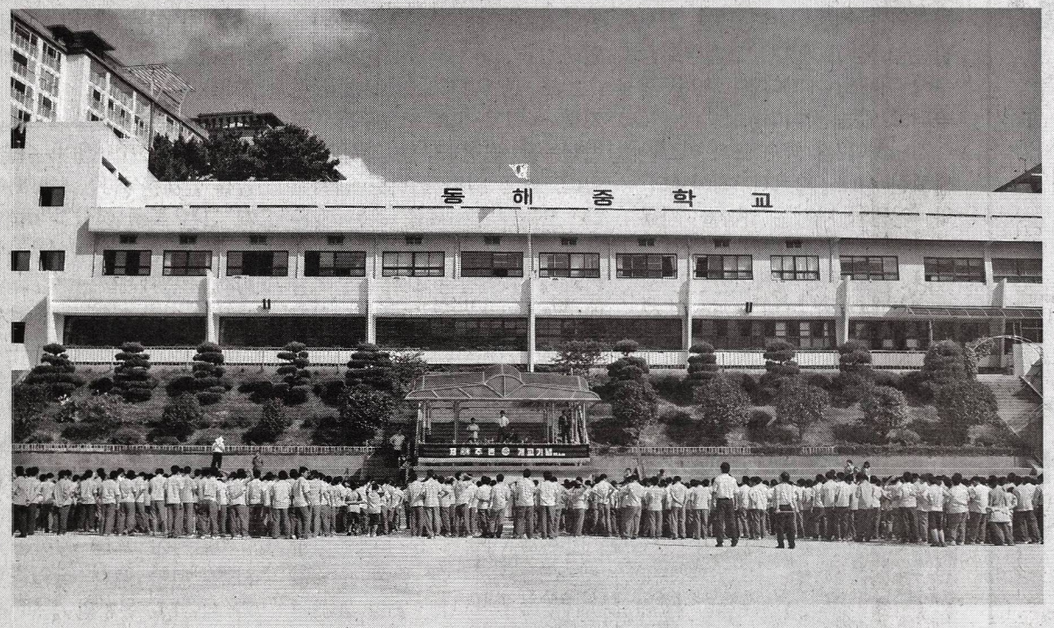
수산 등저 | 휴먼앤북스(Human&Books)



이 책은 불교텔레비전의 '일요 초청법회'를 통해 들려주신 큰 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들을 엮은 것으로, 법문을 펼치신 팔십 여분의 스님 중 수산 큰스님, 천운대종사, 성타 큰스님, 월서 큰스님 등 1차적으로 스무 분의 법문을 엄선하였다.

큰스님들이 전하는 법문들은 자신들이 제방에서 직접 겪은 수행담을 함께 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얻어지는 치열한 구도정신은 우리들에게 죽비를 내리치듯 많은 깨침을 던져준다

동해중학교 제5대 김문수 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동해중학교 이사장 김 현 우

운영위원장 이 성 호

동창회장 국회의원 이 진 복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학부모회장 이 은 진

교계소식

한국最古 통일신라 불교의식구 '출토'

불교문화재硏, 인각사 발굴설명회

◇인각사 출토 통일신라시대 공양구.

사적 374호로 일연스님(1206~1289)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으로 알려진 군위 인각사에서 금동병향로(柄香爐)와 청동으로 조성된 정병(淨甁) 향합(香盒) 이중합(二重盒) 반자(飯子, 금고, 쇠북) 등 통일신라시대 불교 공양구가 일괄 출토됐다.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 스님)와 군위군은 2월 9일 인각사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존처리를 마친 유물을 공개했다.

이번에 출토된 유물들은 탑지로 추정되는 유구 조사과정 중에 발견됐다.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 알려진 예가 없거나 극히 드물어 통일신라시대 불교사 및 금속공예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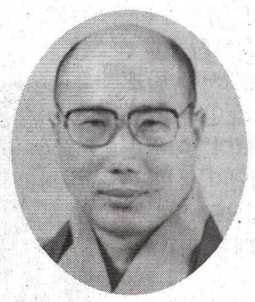
특히 사자가 장식된 금동병향로는 출토지와 성격이 분명한 유일한 예이다. 통일신라 청동정병이 발견된 것도 이번이 최초로, 고고학, 미술사, 불교사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5동과 고려시대 건물지 7동, 조선시대 건물지 2동이 확인돼 일연스님이 주석하기 전인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연구소는 "발견유물들은 스님들이 불교의식 때 사용하던 것으로 출토지역이 정확하고 일괄유물로 발견돼 유물의 성격과 당시의 역사,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라고 평가했다.

중앙승가대 제5대 총장에 태원 스님 선출

2월 28일 제82차 이사회서 표결



태원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제5대 총장에 태원 스님이 선출됐다.

승가학원 이사회(이사장 지관)은 2월 28일 제82차 이사회를 열고 종범 스님 후임 총장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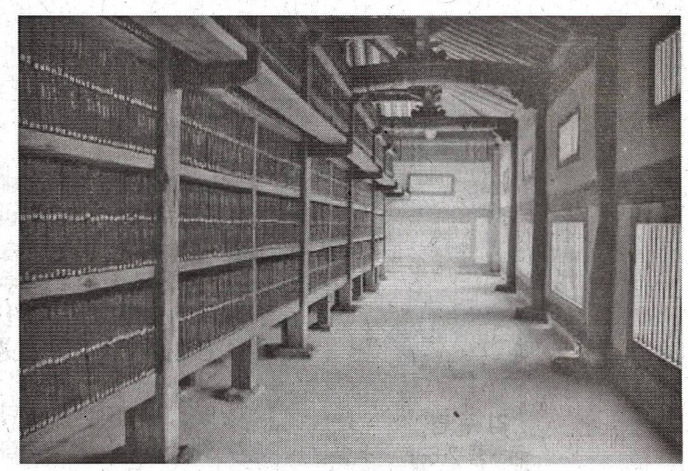
회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원종 스님(제주 관음사 주지)와 교수협의회가 추천한 태원 스님(승가대 불교학과)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태원 스님이 9표, 원종 스님이 1표, 기원 2표로 태원 스님이 중앙승가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태원 스님은 1966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1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1976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1988년 일본 불교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일본 불교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한 스님은 중앙승가대 교수와 서울 정릉 보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고려대장경 천년 엑스포 경제성 충분"

경남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팔만대장경. 현대불교 자료사진.

"고려대장경 천년 엑스포는 328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228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정갑영)에 의뢰해 '2011년 대장경 천년 엑스포(가칭)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흑자경영이 가능하고 국내외적 문화이미지 구축 및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나타났다.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액에 의한 파급효과 344억원과 방문객 지출액에 의한 파급효과 2938억원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입장료 수입(관람객 150여 만명 예상)도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문화적으로도 고려대장경의 고유문화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분석됐다. 대장경의 역사·문화적 가치 증대를 통해 해외에 한국 고유의 민족정신을 소개하고, 국제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쇄술 발달에 관한 학습의 장 제공, 불교문화 DB화를 통한 대중의 접근성 증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국가문화경쟁력 확보 및 세계문화유산 가치 확산과 국가간 문화교류 등이 기대됐다.

하지만 엑스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개최규모의 독창성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 있는 활용을 꾀하고, 행사 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대장경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도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역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창출하고, 고려대장경의 가치를 확산해 국제적 문화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대장경 천년 엑스포'를 개최를 계획중이다. 총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2011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엑스포에서는 대장경로드관, 지식혁명관, 불교문화관 등의 전시행사와 대장경 국가 전통음악 및 무용공연, 국악과 비보이, 뮤지컬, 불교무술 시범공연, 불교음악과 춤 등의 다양한 공연과 학술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산사음악회, 세계목조건축 전시회, 대장경 순례 등의 부대행사도 계획돼 있다. 경상남도는 이달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해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내년도 국비 신청과 조직위 구성 등의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엑스포'라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해 현재 합천군과 해인사 등과 정식 명칭 확정을 논의중이다.

제13회 만해대상 평화상 시린 에바디 변호사

실천부문 - 이소선 유가협 고문 문학 - 로버트 하스·김종길 시인

학술 -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 포교 - 빤냐와로 스님 선정

이슬람권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최초의 여성판사를 지낸 시린 에바디(61) 인권변호사가 제13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는 3월 4일 정오 기자회견을 갖고 "약자의 인권개선과 세계평화를 위해 열정과 헌신을 보여온 시린 에바디 변호사를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해대상심사위원장인 양승태 대법관은 "에바디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여성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란의 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또 실천부문 대상에 이소선 민주화운동유가족 협의회 고문, 문학부문 대상에 미국 계관시인 로버트 하스씨와 김종길 시인, 학술부문 대상에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 포교부문 대상에 빤냐와로 스님을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12일 강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에서 거행된다.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

성명 : 시린 에바디

생년월일 : 1947년 3월1일(6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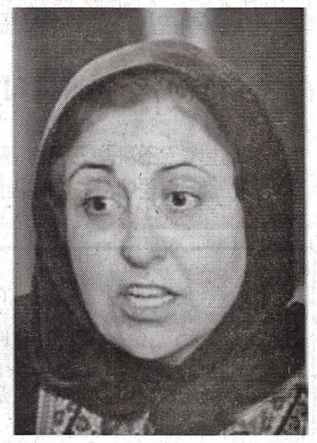
시린 에바디(62) 변호사는 이란 최초의 여성판사, 이슬람권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역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2003년 노벨평화상을 받는 등 세계적 인물로 부상했지만, 정작 그의 조국 이란에서는 여전히 반체제 요주의 인물이자 정권의 눈엣가시다. 그는 평생을 엄청난 용기와 두려움이 수반되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 뒤에도 에바디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그가 이끄는 테헤란 시내 '지뢰제거참여센터'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이를 폐쇄했다. 동료들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식을 치를 예정이던 에바디는 경찰에 끌려갔다가 풀려났다.

1970년대 중반 파흘라비(팔레비) 왕조 시절 판사로 일했던 에바디는 부패한 왕정에 맞서 이슬람혁명에 동참했으나 곧 호메이니식 극단주의에 의해 판사임용 5년 만에 강제퇴직된다. 이후 그는 인권운동에 투신한다. 투옥되고 암살 위협을 당하기 수차례. 2005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보수파정권이 들어선 뒤 탄압의 강도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2006년엔 익명의 살해 협박 편지를 받았고, 당국으로부터 "불법활동을 중단하라"는 압력도 받았다. 외국 언론 접촉도 금지됐다. 그는"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이란과 같은 경직된 사회에서 여성의 몸으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 길로 나가는 게 두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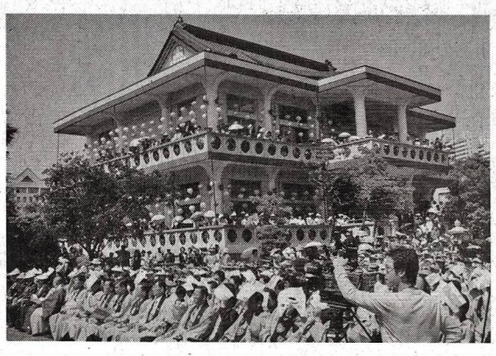


◇시린 에바디

이제는 두려움을 다스릴 줄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이슬람 율법을 앞세운 神政 체제의 이란에서 그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억압받는 인권의 향상을 위해 앞장서 서방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 이란 인권 운동가다.

진각종 각 산하 기관 사무감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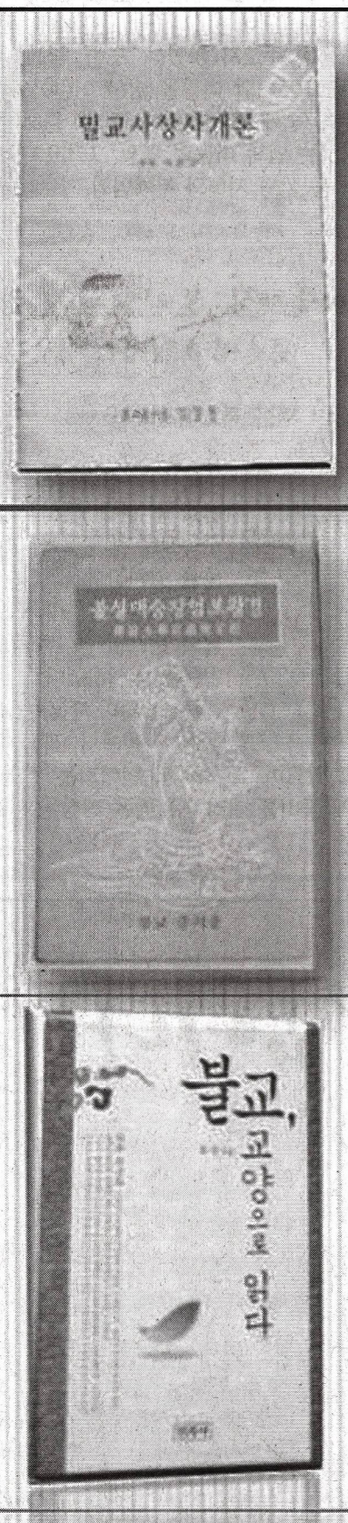
부산교구청 시작으로 26일까지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3월 10~26일 2009년도 사무감사·지도를 실시한다.

통리원과 사감원(원장 효운)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3월 10일 부산교구청을 시작으로 유지재단과 통리원, 교육원(이상 25일) 등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한 7개 교구청별 심인당, 종립유치원 등이 사무지도를 받게 된다.

사감원장 효운 정사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중앙종무기관과 심인당, 유치원 등의 예산편성·집행의 효율성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심인당 운영 및 포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며, 지방 교화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
가 공동 집필 ---

밀교사상사개론

국판 / 정가 15,000원 / 불교총지종출판부

육자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으로 본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변형국판 / 정가 7,000원 / 불교총지종출판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불교, 교양으로 읽다

국판 / 정가 15,000원 / 민족사

한국불교의식의 대명사인 천수경에서 왜 처음과 끝이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비법을 밝히고 있으며 본 심요집을 통해 누구든 성불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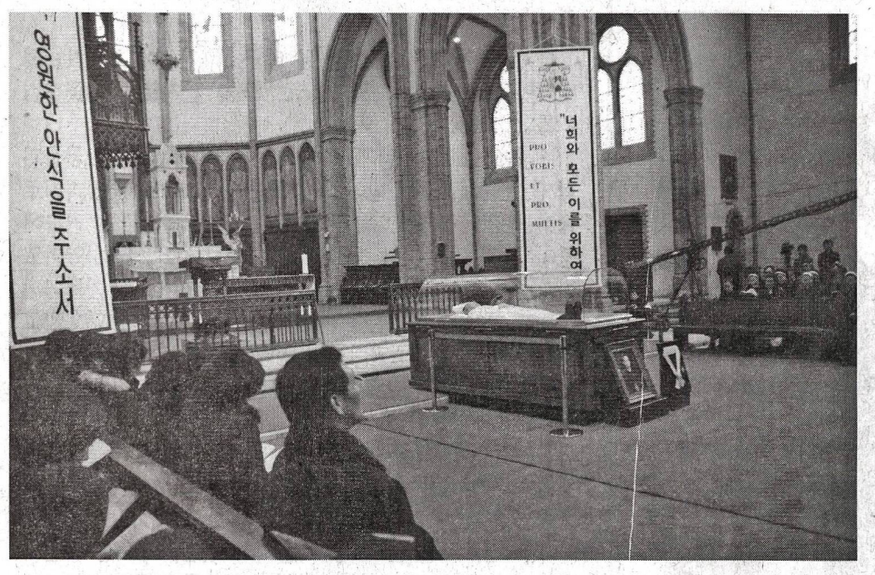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국판 / 정가 8,000원 / 운주사

교계소식

불교계, 김수환 추기경 선종 애도

원송 통리원장, 명동성당 조문



총지종 원송 통리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지난달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원송 통리원장과 진각종 회정 정사, 천태종 관계자들은 2월 17일 명동성당을 찾아 김 추기경 선종을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2월 17일 발표한 애도문을 통해 "추기경께서는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어 우리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해 왔다"면서 "큰 스승을 잃은 천주교인들의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께서 보여준 평생의 지표가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이외에도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2월 16일 빈소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각계에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옥천암 보도각 백불 새옷 입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마애보살좌상 점안식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옥천암 보도각 백불(白佛)에 대한 보수작업이 마무리돼 점안식을 가졌다. 서울 옥천암(주지 정범스님)은 2월 12일 오전10시 경내에서 '보도각 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천일기도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1973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된 백불의 정확한 명칭은 '홍은동 보도각 마애보살좌상(弘恩洞 普渡閣 磨崖菩薩坐像)'으로 흰색의 호분이 전체적으로 두껍게 칠해져 있어 '백불' 또는 '해수관음'이라고 불려왔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서울에 도읍을 정할 때 이 마애불상 앞에서 기원했다고 하며, 조선 후기에는 고종의 어머니가 하늘의 복을 빌었다고 하는 왕실과 관련된 관음도량으로 유명하다.

커다란 사각형태의 화강암에 부조로 새겨져 있는 백불은 높이 5m 규모로 조성됐으며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부에 노출돼 있는 특성상 풍화작용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해 지난 2006년부터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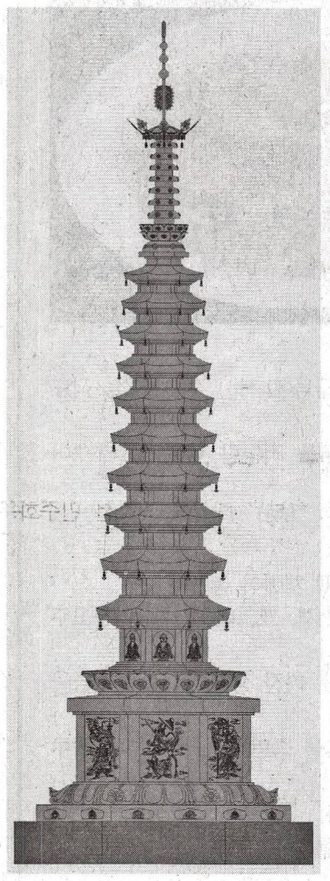
이날 점안식에는 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이 증명법사, 조계종 어장 원명스님이 법주로 참석했다.

점안식에 이어 천일기도 입재도 함께 봉행했다.

◇새로 점안된 '홍은동 보도각 마애보살좌상.

조계사, 고려양식 8각 10층탑 건립

"현존탑은 일제 강점기 때 양식"


◇모형도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사 대웅전 앞 석탑이 전통 고려시대 양식의 8각10층 탑으로 교체된다.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2월 11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1930년 일제 강점기 때 세운 기존 7층 탑이 일본풍이 가미되어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석탑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군운융창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원력으로 내년 조계사 창건 100주년을 맞아 전통 양식의 탑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8각 10층탑의 높이는 15m 66㎝이며, 기단부 폭은 6m"이라며 "현재 탑불사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총무원장 스님의 주관하에 진행하여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 제작과정을 꼼꼼히 검수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성보로 후세에 물려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8각 10층탑은 중대부의 8면에 천용(天龍)과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금시조, 긴나라, 마후가라 등 '팔부 신중상'을 새길 것"이라며 "첫 번째 탑신 8면에는 과거의 3불과 현재의 4불, 미래불 등 여덟 불상을 부조로 새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탑의 상륜부는 청동 함 형태로 만들어 금으로 도금하며 그 안에 기존 탑에 있던 부처의 진신사리를 옮겨 모실 계획"이라며 "이 사리는 1914년 스리랑카의 달마바라 스님이 기증해 각황사에 있다가 기존 탑에 봉안돼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건립비용은 13억이 소요되며, 석재는 최고 품질로 이름난 경주의 화강암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대구시에 있는 보광석재에서 제작을 맡아 오는 6월 중순께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 탑 건립에 시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작은 청동불상에 새겨 새 탑에 봉안할 예정"이라며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일번지가 될 수있도록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탑불사와 관련해 법화산림법회, 탑사진전, 8각10층탑 모형전시, 탑을 주제로한 강연회, 사리친견및 봉안법회, 사적비및 자료집 발간, 사적비 낙성식등 탑불사 홍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7층탑에 모셔진 진신사리와 복장물은 그대로 새로 조성한 10층탑에 모시게 되며, 기존 7층탑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계종 중앙박물관 쪽으로 이전돼 전시될 예정이다.

생활상식

◀ 코가 막혔을 때는 젖은 수건을

코가 막혔을 때는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젖은 수건을 코에 대고 몇 차례 심호흡만 하여도 코 속에 적당한 습기가 제공되어 코 막힘 증상이 해소된다.

◀ 홍차로 눈에 팩을 한다

우려낸 홍차 티 백을 가볍게 짜서 눈 꺼풀에 5~10 분간 얹어 놓으면 놀랄 만큼 눈이 상쾌해지고 시원해진다. 겨울 철에는 따뜻할 때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낡은 칫솔로 발바닥의 경혈을 자극

낡은 칫솔의 자루를 사용하여 발 바닥의 경혈을 자극한다. 손에 쥐기도 쉽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보다 강한 힘이 들어가 효과가 커진다. 욕조에 몸을 담근 상태에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금강대 졸업생 다수 미·일 명문대학원 진학

정상교·원영아씨 각각 동경대·와세다대 대학원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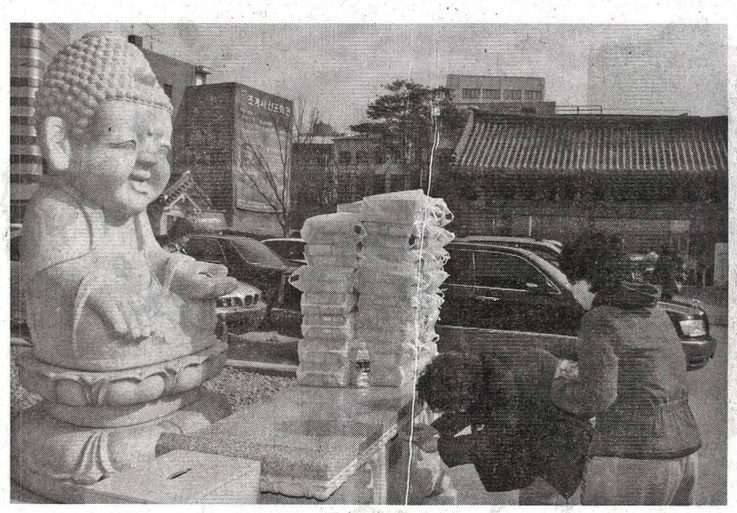
불교 교리에 입각한 인재불사를 지향해 온 천태종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 졸업생 2명이 또다시 해외 유명 대학원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

금강대는 정상교(불교학전공·2008년 2회 졸업)씨와 원영아(일어통역전공·2008년 2회 졸업)씨 등 2명이 각각 일본 동경대 대학원과 와세다대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정상교씨는 2008년 동경대 대학원 연구생으로 합격한 후 1년만에 석사과정에 합격했으며, 원영아씨는 2008년부터 일본 나고야대 대학원 연구생 과정을 거치다 이번에 와세다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금강대 성낙승 총장은 "이들 졸업생들에게는 장학위원회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금강대의 지원에 힘입어 목표한 바 학업을 마치고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난다면, 세계무대는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핵심 인재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대는 3월 3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성낙승 총장, 학부생 98명과 대학원생 11명(석사과정 8명, 박사과정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 황호성·김주영 학생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금강대의 빛나는 전통을 수립하겠다"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며 세계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학도로서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금강대는 소수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첫 졸업생부터 미국 조지타운대, 일본 와세다대 등 해외 명문 대학원에 진학하고, 행정고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등 불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큰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군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지난달 3일 조계사에서 군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보시하는 행사가 열렸다. 불자들이 동자승앞에 올려둔 초코파이를 보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 기고 / 중국, 중국인 이야기①

내 눈에 비친 중국인

이 정 화 〈총지사〉

중국 유학 시절 겪은 에피소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난감했다. 어른이 부탁하는 것이니 거절할 수도 없고,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 과연 내가 쓰는 글들에 관심이 있으실지 말이다.

처음부터 단순한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닌, 게다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도저히 떠날 수 없던 상황에 힘들게 결심하여 공부를 위해 떠났던 것이라, 천진의 항구에 도착하여 미엔디(面地)라는 노란 택시를 타고 중앙선도 그려져 있지 않은 도로를 막무가내로 내달릴 때도, 러닝셔츠를 가슴팍까지 둘둘 말아 올려 수박 한 덩이를 품은 듯한 배를 길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중국인들을 볼 때도, 재미있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정신 바짝 차리고 버텨내야 한다는, 익숙해져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뿐이었다. 그래도, 이야기를 풀어보려,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리다 보니,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사람' 이다.

▲중국 천진에서의 나만의 보금자리. 소박했지만, 이곳이 가장 정겹다.

중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 중에, 중국인들에 대하여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 단단히 한 몫을 한 듯하다. 게다가, 중국에 도착하여 만난 한국인들에게서 들은 중국인들의 행태는, 특히, 유학생들이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는 집주인들의 파렴치하고, 뻔뻔한 행태는 나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집주인과 조금 다투게 되자, 세입자인 유학생이 없는 사이 집 현관 열쇠를 바꾸어 버린 집주인, 벽에 못을 박았거나, 냉장고 사용설명서를 잃어버렸다고 보증금(중국에는 '전세' 개념이 없고, 세입자들은 모두 '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한 번에 3개월, 또는 6개월 치 집세를 한꺼번에 선불로 계산하며, 보통 대부분의 가전제품과 가구가 갖추어져 있기에, 이것이 훼손되거나 고장 났을 경우의 배상, 또는 계약 위반에 대비하여 월세 한 달치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아둔다)을 못 내어 놓겠다며 막무가내인 집주인, 시도 때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비상시를 대비하여, 집주인이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등등.

뭐,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인들의 보복 또한 만만치 않다. 이렇게 집주인과 좋지 않게 끝이 나게 된 한국인들 중에는 틈나는 대로 예전 살던 집을 찾아가 몰래 현관문 구멍에 씹던 껌을 집어넣어, 다시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든다던가, 방을 빼기 전 국제 전화를 무지하게 사용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는 전화비로 집주인의 뒤통수를 친다던가, 실제로는 싸게 산 소파를 무지하게 비싼 거라고 속여 주인에게 되파는 등의 갖은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세입자라는 약자의 입장이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제 갓 중국 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 이런 이야기들뿐이니, 한동안 모든 중국인들을 대할 때면, 전투태세를 갖추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고민하곤 했으며, 집주인과 만날 일이 있을 때면, 몇 시간 전부터 긴장과 불안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짧은 중국어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30%조차 이해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점점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은 늘어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중국에 도착한지, 한 달 만에 다시 이사를 하고, 집에 있던 냉장고가 고장이 나고,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등, 끊임없이 터지는 일들을 겪다 보니,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다른 한국인들에게 의논할 때면 나오는 갖은 의견들.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에 지친 나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믿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그들 또한 같은 사람이기에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그들도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었기에, 무조건 웃는 얼굴로,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자,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 먼저 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자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 거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어 실력도 늘게 되어,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로도 내 생각을,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자, 나를 보는 그들의 시선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중국 칭화대 법학원 동기들과 함께. 이들과 함께 보낸 2년. 많은 것을 배웠다. 좌측에서 세번째가 필자.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던 집주인 부부와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열게 되었고, 집주인은 틈 날 때마다 나를 저녁에 초대하고, 가구도 바꾸어 주는 등, 처음의 깐깐했던 태도는 어느덧 사라지고, 항상 걱정해주고, 내가 한국에 잠시 들어간다고 하자 부모님께 드리라며 천진의 특산품을 선물하기도 하였고, 내가 북경으로 올라온 후에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자신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며 먼저 연락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 후,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며 그들과의 만남이 그저 한 두 번의 가벼운 인연으로 끝이 나거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평생 인연을 맺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국인이라는 사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드물다. 무엇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속을 알 수 없는 그들의 천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기에, 내가 먼저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을 나눌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깨달았고, 이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듯 하다.

▲2007년 설, 북경에 머물러 있는 나를 초대한 지도교수님 댁에서.

사찰음식

표고버섯 단감배추 김치

대중이 함께 만드는 울력음식

김치연구가 김만조 박사(본 연구소 1기 수료회원)는 옛날 통도사 승가록식보(僧家綠食譜)를 근거로 사찰풋감김치를 소개하고 있다.

두 쪽으로 쪼갠 탱자 서너 개와 계피를 끓는 소금물과 함께 풋감이 담긴 항아리에 붓는다. 그리고 댓잎파리로 눌러 뚜껑을 닫은 다음 볏짚으로 항아리를 감싸 땅속에 묻어 삭힌 후, 어린 동자승들의 간식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반드시 꼭지가 붙은 단단한 풋단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잘 익으면 옅은 주황색이 되며 속살이 연해지고 떫은맛도 없어져 비파나무의 열매맛과 비슷하다고 한다.

사찰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행정진의 또 다른 행태가 울력(대중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육체적인 노동)이다. 그 수많은 울력 중에 김장김치 울력은 힘든 가운데에도 괜히 마음이 든든하고, 그저 흥겨우면서도 노장스님의 따스함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들이다.

이제 건표고는 갈아 놓고 홍시와 단감, 배추를 손질해 정성이 가득한 '표고버섯단감배추김치' 를 만들어 보자.

■ 재 료

배추 1통, 단감 4개, 홍시 4개, 무 1/2개, 붉은 갓 1/4단, 다진 생강 2큰술, 고춧가루 3큰술, 마른고추 갈은 것 4컵, 조선장 1/2컵, 굵은소금 5큰술, 찹쌀풀 8컵, 물에 불린 표고채 10개, 표고버섯가루 3큰술, 말린청각 30g, 대추채 10개, 표고다시물(찹쌀풀 끓일 양)

■ 조 리 법

①반으로 쪼갠 배추를 소금물에 적신 후 반나절 정도 절여 놓는다.

②표고다시마물에 찹쌀가루를 적당량 넣고 풀을 쑤어 식혀 놓는다.

③불린 표고를 곱게 채썰고, 불린 청각을 적당히 자른다.

④대추채를 실고추처럼 곱게 채썰어 놓는다.

⑤2에 표고채, 청각채, 대추채, 표고버섯가루, 마른고추 갈은 것을 잘 섞는다.

⑥5에 껍질 벗겨 으깬 홍시, 다진 생강, 조선장, 소금을 넣어 간을 잘 맞춘다.

⑦무는 채썰어 소금으로 숨을 죽인 후 고춧가루에 버무려 놓는다.

⑧갓은 적당하게 썰어 둔다.

⑨단감은 껍질 벗긴 후 씨를 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놓는다.

⑩6에 7, 8, 9를 잘 섞은 후 배추 사이사이에 넣어서 항아리에 넣은 후 우거지를 덮어 놓는다.

⑪버무린 후 바로 먹어도 되고 취향에 따라 익혀 찌개를 끓여 먹어도 좋은 사찰 별미 김치이다.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치매 중풍 예방 및 치료
*항산화 효과-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줌소태, 방광계통 치료
*위장 질병 치료예방(위궤양, 십이지장)
*장내 유해세균 억제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탈모방지, 발모촉진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서울대,경희대,전북대,원광대 연구발표 -

* 가격: 복분자 엑기스 \₩40.000 복분자주 \₩25.000 * 2병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영화에서 불교보기 ③ / 식스센스

영혼이 있다고 믿나요?

브루스 윌리스의 신비한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 〈식스센스〉(미국, 1999)는 반전을 즐기는 게 관람 포인트입니다. 이 영화만큼 정말 기가 막히게 결과를 비튼 영화도 드물지요.

자신을 사람이라 믿었던 영혼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보는 사람도 영혼을 사람으로 착각하게끔 감독은 트릭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알게 됐을 때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많이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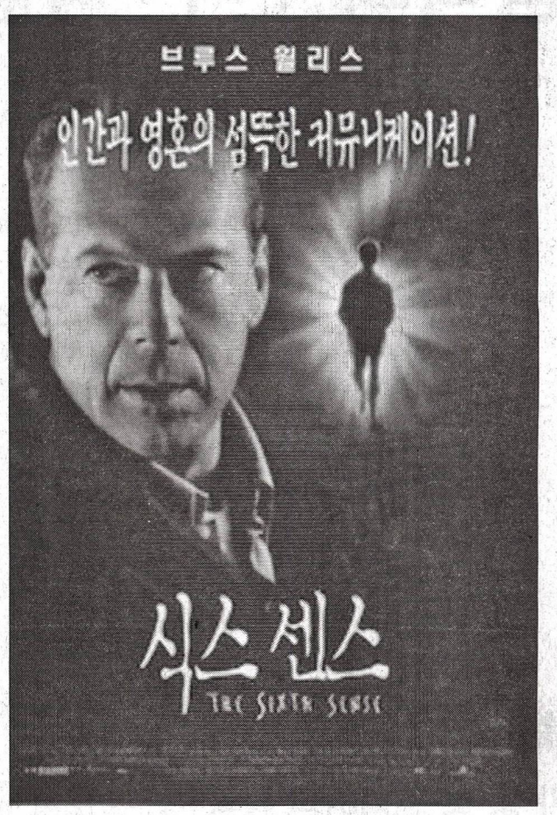
〈식스 센스〉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한 말콤 박사는 아동심리학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를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맡은 애들 중 한 명은 영혼을 보는 애였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현상만을 믿는 말콤은 이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애를 정신분열증으로 분류합니다.

정신병자가 된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말콤에게 총을 겨눕니다. 총을 맞은 말콤이 화면에 잠깐 비춰지고 다음해 가을로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여기서 보이는 감독의 트릭은 참 신선했습니다. 눈 밝은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속아 넘어가지요. 이제부터 나타나는 말콤은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허나 여전히 그는 자신이 살던 집에 살고 그전에 했던 일을 하고 있기에 보는 사람 누구도 의심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영화가 진행되는 곳곳에서 의심할만한 상황이 있지만 이전과 너무나 똑같은 삶의 모습이기에 말콤 자신이 자기가 영혼인 걸 모르는 것처럼 관객도 전혀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믿지 못했던 말콤이 나중에 자기 자신이 영혼인 것을 확인하고 꽤 당황하게 되는 과정이 참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이 영화는 영혼을 위한 영혼에 의한 영혼의 영화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영혼이 등장하는 영화들은 꽤 있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식스센스 월 페이퍼

데미무어가 출연했던 〈사랑과 영혼〉은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혼영화고, 최근의 호러영화에 나오는 것도 영혼이지요.

허나 이들 영화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기 위해 영혼이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이용했다면 〈식스센스〉하고는 차별됩니다. 〈식스센스〉는 영혼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정도로 영혼은 실재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고스트에 대한 확신에 차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의 태도는 영혼이 분명 존재한다는 걸 확인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영혼은 있을까요? 저도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전의 말콤이 그랬던 것처럼 귀신을 망상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영혼이 된 말콤처럼 귀신 세계를 인정하는 쪽일까요?

물론 불교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귀신을 완강하게 부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승으로 추앙받는 원효스님의 견해를 일반적인 불교의 입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효스님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인 해골에 담긴 물 마시기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한 이야기가 다르게 변형 유통된 것 같습니다.

어느 때 원효스님은 의상스님과 함께 당나라도 유학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니 날은 어두워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피할 곳을 찾다가 꽤 아늑한 곳을 발견하고 들어가 그날 밤을 거기서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곳은 시체의 뼈가 굴러다니는 오래된 봉분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비가 마구 쏟아지고 천둥 번개도 치고 해서 도저히 길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또 그곳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은 전날 밤과 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귀신들이 나타나 원효를 놀라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원효스님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님은 무덤 속을 나오다가 한 소식 얻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일체유심조' 라고.

무덤 속이라는 걸 모르고 잔 날은 달게 잘 잤는데, 무덤이라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귀신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지요. 귀신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조화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원효스님의 깨달음을 정리해서 보면, 귀신이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귀신과 관련한 생각이나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싹을 틔우고 귀신이라는 세계를 창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동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스센스〉를 만든 샤말란 감독은 귀신이라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와 분별되는 세계지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고, 하늘에 떠있는 달을 탐사함으로써 실재함을 입증한 것처럼 영화를 통해 "봐 이러니까 사실이지", 하는 어조로 증거를 나열하면서 실재함을 입증하려고 애썼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망한 세계라는 입장이지요. 정신병자가 체험하는 세계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분명 보이니까 실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혼자만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귀신 세계 또한 이것과 같다는 게 불교의 입장입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세상사는 이야기

숭례문 복원

2008년 2월 10일은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느 한 노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불에 타 무너져 내려 우리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벌써 1년이 지나가다니..... 그 동안 간간이 복원 소식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1년이라는 세월 앞에 그 참담한 순간의 기억과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본다.

늘 거기 그렇게 600여 년을 꿋꿋이 한 곳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말없이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숭례문'. 그 동안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의 상징인 숭례문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숭례문이 소실되는 것을 보고서야 우리 모두는 느꼈다. 숭례문은 단순히 역사유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얼이라는 것을.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저녁시간에 느긋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긴급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다. 화면에는 연기가 조금씩 피어 오르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저 정도면 서울시내 한 복판에 있는데 곧 불이 꺼지겠지. 하고 철렁 내려 앉았던 가슴을 쓸어 내리고 계속 보고 있었다.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고 관계자들도 나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불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어이 붉은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이 당황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때부터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조금씩 불길이 거세지기 시작하더니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마치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을 그렇게 허술하게 방치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마구 쏟아내듯 무섭게 타고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따끔한 경고를 하고 있었다. 숭례문의 누각이 불길과 함께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와 나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지난 날 간혹 숭례문을 지나칠 때 외국 관광객을 보면 조금은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었다. 외국의 거대한 문화재 앞에 우리의 문화재는 너무 규모가 작고 내세울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오늘 난 죄책감을 못 이겨 깊은 수렁으로 빠져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생각이 모자랐으면 감히 그런 생각을 했을까? 숭례문이 세워졌던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우리 민족의 모습을 쏙 빼 닮고 웅장하기까지 한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일제에 의해 양쪽 성곽이 철거 되었고 전차 궤도를 놓으며 지면이 1.6미터 정도 높여져서 숭례문의 높이가 그만큼 낮아졌으며 현재는 고층 빌딩 숲에 가려져 과거의 웅장한 모습을 잃어버렸다.

복원할 때 화마로 인한 상처와 일제시대의 아픈 역사까지도 치유 하고 수습된 부재를 가능한 한 재사용해 국보 1호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유지한다고 하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 진다.

간간이 보슬비가 내리는 오늘, 화재 1주년을 맞아 일반인에게 복구 현장이 공개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지방에서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 엄마는 아이들에게 불타버린 숭례문을 보여주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불타기 전에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다시는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은 모든 국민이 느꼈을 것이다.

2012년에 복원이 완료 된다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한을 정해 놓으면 자연히 밀어붙이기식 공사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 동안 우리는 모든 일을 너무 성과 올리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 이번 숭례문 복원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후회 없게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겠다. 1950년 방화로 소실된 일본 교도에 있는 '금각사'는 복원 하는데 5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다.

영원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국보 1호로 당당히 남을 수 있도록 '숭례문' 복원에 직접 참여 하는 사람들과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박묘정(총지사)

수행의 길에서

그 보살님

정각사에 온지 3년, 이제는 죽비 잡는 자세와 그리고 법의를 입은 모양새에서 승직자 티가 제법 난다는 낯 간지러운 주위의 말 한마디가 싫지만은 않는 느낌이다.

3년이라는 정각사 생활은 나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았다고 주절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아상도 같이 받아 키운 것 같아 짧고 미흡한 내 수행력이 부끄럽기만 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내 짧고 미흡한 수행력과는 별 상관이 없는 터라 그 이야기는 이쯤에서 덮고 넘긴다.

3년 전 처음 내가 정각사에 왔을 때 유독 내 눈에 들어오는 보살님이 한분 계셨다. 차분하고 조용한 움직임에 항상 웃음을 눈가에 띠며 편안한 음성으로 자분자분 말씀을 하시던 보살님. 어쩌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나와 열심히 정진하시던 그 모습에 반해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 보살님처럼 주위사람들에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하기도 했다.

특히 항상 웃는 온화한 얼굴은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무재 칠시(無財七施) 중 하나인 화안시(和顔施)의 실천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밝고 평안한 얼굴로 남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베품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보살님 이었다.

사실 말이 쉬워 화안시지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불교를 공부하여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실천 하려고 노력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해불공이 끝나고 그 보살님 집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가보았는데 역시 나 평소 내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거실의 소파나 벽에 걸린 가족사진, 방안의 가구들과 진열장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안주인 심성처럼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어울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집에 대한 어색함이나 거부감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집에는 7년 전부터 몸이 불편한 각자님이 계셨다. 각자님은 보살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이며 병세는 조금도 호전됨이 없이 아주 천천히 진전되고 있는 중이었다. 누구보다 힘들고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 짐작되지만 전혀 내색 없이 여러 해를 집안 살림살이와 각자님 돌보기를 병행하고 있는 보살님을 나는 새삼 다시 보게 되었다.

결혼하고 시집 어른들과 그리고 지금은 투병중인 각자님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말을 여는 보살님의 표정에는 조금도 힘들거나 고생스럽다는 느낌을 찾을 수는 없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친정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는 보살님이 혹시 눈길에 넘어질까 걱정스러워 집 앞 길 위에 하얗게 쌓인 눈을 끓인 물을 부어 녹여 놓으셨던 자상한 시어머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속상하게 한 적 없고 큰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각자님. 지금까지 그들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만 각자님의 병세가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어 너무 가슴 아프다는 보살님. 그래서 부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열심히 정진하는 것처럼 남들 눈에 비추어진 것 같다며 부끄러워하며 겸손해 하시는 그 보살님.

이제 겨우 3년,

승직자 모양새가 난다는 어설픈 칭찬 한마디에 그 보살님 앞에서 으쓱해 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오늘 밤에는 정각사 발령을 처음 받고 두려움과 걱정스러움을 달래기 위해 열 번도 넘게 읽었던 종조법설집의 첫 장 '스승의 사명'을 다시 새로 소리내어 크게 한번 읽어 보아야겠다.

-자인행(慈忍行) /부산 정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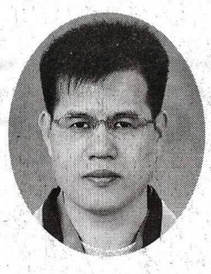
어려움 속에서도 온화한 미소 잃지 않아

인사발령

흥국사 밀공정

흥국사 주교 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3.1일자)

총지사 지정



총지사 근무를 면함.
흥국사 근무를 명함.
복지재단 사무국장 겸직근무를 명함.
(2.26일자)

한연숙

총지사 시무 근무를 명함(2.1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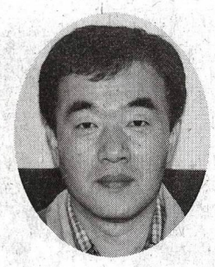
이현자

총지사 시무 근무를 명함(2.13일자)

박홍엽

통리원 종무원 수습근무를 명함(2.13일자)

경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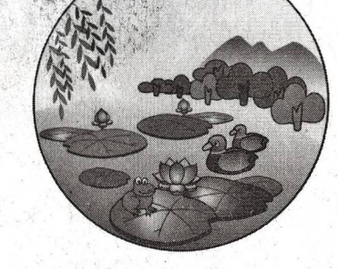
단음사 종무원 수습근무를 명함(2.13일자)

박종한

통리원 종무원 수습근무를 명함(2.13일자)

김태원

관음사 종무원 수습근무를 명함(2.1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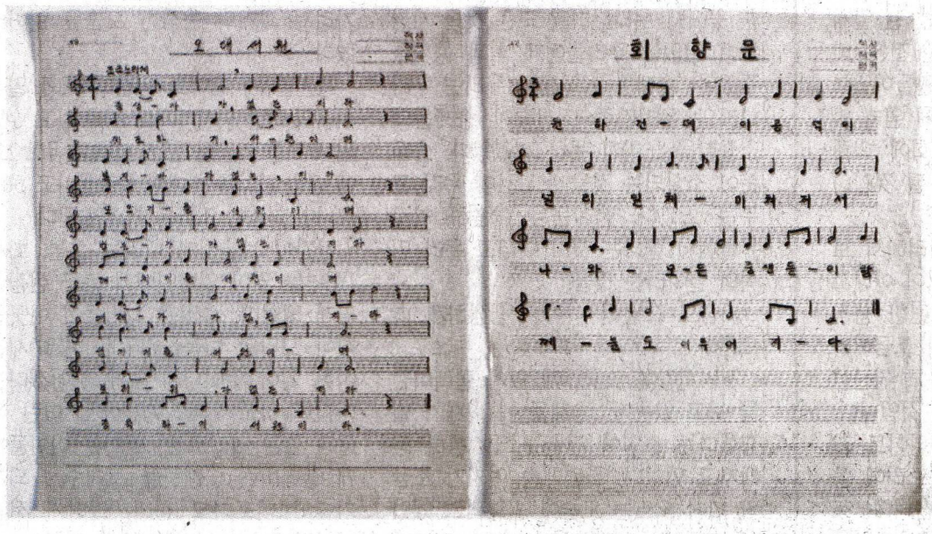
총지 FOCUS /현대찬불음악의 개척자 우성 서창업

"불교음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총지종 의식곡 편곡 등, 불교음악의 선구 역할

▶ 원정 대성사, 총지종 의식곡 - 찬불가 제작

찬불가 보급위해 가창연습 지시



◇총지종 종조 원정 성사는 오대서원과 회향서원을 작사, 작곡해 법회 의식 등에 사용토록 했다. 사진은 오대서원과 회향문 악보.

총기 3년(1974) 9월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는 오대서원과 회향서원을 작사, 작곡하여 공식시간과 기타 의식에 사용토록 했다.

원정 성사는 총기 4년 10월 종헌에 규정된 영가포교에 관심을 기울여 예불가를 작사하여 종회에 발표하였다.

곡목은 △네가지 큰 은혜 △성도절의 노래 △보은의 노래 △창교절 노래 △성혼찬가 △왕생가 △조가 △만가 △밀교삼신의 노래 △참회의 노래 △법신부처님 △부모의 은혜 △자성일을 지키자△부부가 화순하면 △하루동안 행복함은 △우리 회사 올린 것 등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창교가, 성도가, 부부은혜, 보은의 노래, 자성일을 지키자, 성혼찬가 등 6곡의 예불가를 작곡, 발표했다. 총기 12년(1983) 4월 찬불가라 명명하고 새로 제정된 찬불가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전국 스승들에게 가창연습을 지시하기도 했다. 거개의 총지종 찬불가들의 작곡의 골자는 원정 대성사가 하되, 세세한 부분은 전문 편곡자에게 의뢰했다.

이렇게 보면 원정 대성사는 현대찬불가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창업은 누구

총지종의 불사법요에 보면 창교가를 비롯해 오대서원가, 참회가, 회향가, 하루동안 행복함은, 자성일을 지키자 등의 편곡자는 '서창업'으로 되어 있다. 우성 서창업은 찬불가라는 장르를 세상에 알린 불교음악의 개척자였다.

서창업은 1928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광복과 함께 부모를 따라 고향 경주로 돌아왔다. 서울대 음대에 입학, 작곡을 전공하고 졸업작품으로 연작가곡 '산골로 가노라'를 발표, 호평을 받았다. 졸업 후 10여년 간 경주의 중.고교 음악교사 생활을 했으며 60년 초 서울로 올라온다. 60년대 후반부터 유니온악보출판사에서 편집과 악보 정사보를 하는 중 찬불가와 인연을 맺는다. 1972년 당시 포교지 '자비의 소리'를 운영하던 반영규가 가사를 들고 와서 작곡 의뢰를 한 것이다. 어렵게 응낙을 하고 작곡을 시작한 서창업은 조계사에서 한 중년 남자의 독경 소리에 감명을 받은 후 여러 사찰의 합창단 지도를 하며 불심을 키워 나갔다.

◇故 서창업 선생

'73년부터는 찬불가 작곡과 불교합창단 지도에 전념한다. '74년 삼보법회의 청년회를 중심으로 불교계 최초로 불교합창단을 창단하고 이후 여러 사암의 합창단 창단에 관여했다. 같은 해 6월 반영규와 함께 '불교음악연구원'을 만들어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하고 초대원장을 맡는다. '76년 춘추각에서 최초의 찬불가집 '찬불가'를 출판하고 이듬해 5월에는 서라벌레코드사에서 테너 김화용을 기용, 불교가곡 LP음반을 출반했다.

'79년 아내가 타계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찬불가 작곡과 합창단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즈음 세광출판사의 음악대사전 편찬작업에 착수해 '82년 출간한다. 이후 병고에 시달리던 서창업은 1989년 10월 향년 62세로 별세한다.

▶ 우성 서창업(徐昌業 1928-1989)

봉축가, 의식찬불가 등 총 100여곡 작곡

서창업은 1973년 작곡한 사홍서원(후에 '기어코 이루리라'로 곡목 변경)을 시작으로 삼귀의(후에 '삼보님께 의지하오니'로 곡명 변경), 둥글고 밝은 빛, 부처님께 기원합니다(김재영 작사), 홀로피는 연꽃(서창업 작사), 새법우 환영가, 부처님 마음일세(반영규 작사), 결혼축가, 등을 작곡했다. 이와함께 한문경전에 곡을 붙인 반야심경을 비롯해 붓다의 메아리, 빛으로 돌아오소서(광덕스님 작사) 등 총 100여곡을 완성한다. 그의 작품은 봉축가, 의식찬불가, 대합창곡, 어린이 노래, 발원가, 불교가곡 등 매우 다양했다.

1920년대 용성스님은 최초의 찬불가라 할 수 있는 '왕생가'와 '권세가'를 만들어 부르게 했다. 그 이후 정학유(해인사 스님이라 알려짐), 운문 스님, 등이 애를 썼지만 이렇다 할 불교음악의 성과는 부재했다. 어떤 기금이나 후원이 전무했던 70~80년대, 서창업은 그렇게 불교음악을 위해 헌신했다.

"불교음악을 위해 불교음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를 위해 불교음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불교음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인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불교음악은 '진리의 언어'이며 '진리의 얼굴'이어야 한다.....우리의 불교는 '평소'의 종교여야 한다. 빛의 종교이어야 한다."

-서창업의 '찬불가' 서문. 1976 춘추각.

▶ 총지종 찬불가집 '음성공양 받으소서'

총지종 찬불가집 CD '음성공양 받으소서'는 종단의 기획하에 전국 각 사원에서 선별된 합창단원, 배해근(총지휘), 김현경(반주), 진우(프로듀서) 등이 참여해 만들었다.

◇총지종 찬불가집 CD '음성공양 받으소서'종단 기획하에 합창단원 300여명이 참여, 제작했다.

당시 승단에서 지회심, 정법계 전수, 대구 경북(개천사) 교구 최지형 단장, 충청 전라(만보사) 교구 이추자 단장, 민순분 회장, 부산 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 서울 경인 교구 원각화 단장, 박묘정(지휘), 조경숙(반주), 노진숙, 이연수, 박정희 단원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수록곡은 의식곡 ▷참회가 ▷오대서원가 ▷회향가 ▷창교가, 찬불가 ▷하루동안 행복함은 ▷자성일을 지키자 ▷네가지 큰 은혜 ▷부부가 화순하면 ▷우리희사 올린것 ▷법신부처님 ▷해인절 노래 ▷밀교삼신 ▷부모은혜 ▷보은노래 성▷혼찬가 ▷왕생가 ▷조가 등이다.

- 윤우채 기자

◇지난해 12월 창교절을 기념해 열린 제2회 서울 경인 교구 합창제 장면.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서울 · 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모집시기 : 수 시
◆ 연습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연습장소 : 총지사
◆ 연 락 처 : 이 연 수 단 장
02)552-1080~3(대)